해외건축동향.

미국

글. 김충호_ Kim, Chung-ho

미국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박사과정

미국 그린빌딩 평가시스템의 경쟁과 진화

Competition and Evolution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in America

미국의 그린빌딩 평가 시스템

건축은 일반적으로 대지 지향적(site—specific)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건물이 놓이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많은 건축사들은 기후, 역사, 문화 등 대지가 가지는 모든 조건들을 바탕으로 대지에 가장 적합한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 이런 대지 지향적인 건축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 건축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흐름들도 있다. 아마도 친환경, 디지털 디자인, 복합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인 '친환경'과 관련된 미국 건축계의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오늘날 건축계에서 '친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오염 등 전 지구촌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1987년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의 브룬트란트(Brundland) 보고서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전 세계의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4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건축계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린빌딩'이라는 개념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그린빌딩'의 광범위한 현실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 왔는데, 하나는 그린빌딩 평가 · 인증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빌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었다. 미국은 현재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있어 전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으며, 전자의 방법이 후자보다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여러 그린빌딩 평가시스템들은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의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와 '살아있는 미래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ILFI)'의 Living Building Challenge라고 할 수 있다. 두 평가시스템 모두 지속적인 상호 경쟁 속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으 며, 삼우설계와 해안건축에서 5년 동안 건축 및 도 시설계실무를 익혔다. 현재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박사과정에서 '동아시아의 도시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 다. 저서로는 〈디자인3분스피치〉(조형교육), 〈욕망 의 도시, 서울)(계간지 1/N, 살림)' 등이 있다.

LEED v4 vs. Living Building Challenge 3.0

LEED v4는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 역시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BD+C(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ID+C(Interior Design and Construction), O+M(Build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ND(Neighborhood Development), HOMES 등 크게 5개의 평가시스템이 있다. 건물의 평가 및 인증은 평가 매뉴얼에 따른 영역별 획득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되며, 최종 점수에 따라 인증의 가부와 등급(Certified, Silver, Gold, Platinum)이 결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건물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증제도(Green Associate, AP Fellow) 역시 있어, 그린빌딩뿐만 아니라 그린빌딩 전문가의 확산과 지속적인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린빌딩 전문가 인증제도는 실제로 LEED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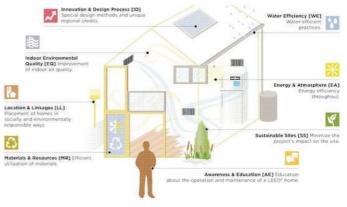
Living Building Challenge 3.0은 실제 건물에 대한 가장 엄격한 그린빌딩 평가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린빌딩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7개의 평가영역(Petals: Site, Water, Energy, Health, Materials, Equity, Beauty+Inspiration)에 걸쳐, 20개에 이르는 모든 의무요건(Imperatives)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Living Building Challenge는 건물 신축 직후 실시되는 예비 인증(Preliminary Audit)과 건물 완공 이후 12개월 동안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실시되는 최종 인증(Final Audit)의 2단계 인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린빌딩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격한 평가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준 높은 평가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평가시스템	LEED v4	Living Building Challenge 3.0
주관기관	U.S. Green Building Council	International Living Future Institute
인증방식	평가 매뉴얼에 따른 획득점수 기준으로 4단계의 인증등급 부여	건물을 완공하고 12개월 동안 건물의 실사용 이후 최종 평가 인증되며, 모든 평가 요건의 통과가 의무화
일반적 특징	- 범용적이고 유연한 평가시스템 - 북미와 많은 개발도상국(남미, 중국, 인도 등)에서 현재 세계적인 인지도 확보하고 있음	 가장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가시스템 유럽과 북미에서 현재 인지도 확보하고 있음
정기회의	GreenBuild	UnConference

미국 그린빌딩 평가시스템의 향후 진화 방향

현재 LEED v4와 Living Building Challenge 3.0 모두 단일 그린빌딩의 한계를 넘어 마을 단위까지 확장되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건축의 범위를 넘어 도시계획 차원의 '그린커뮤니티'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주나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평가시스템의 인증 여부를 중요한 건물과 마을의 가치에 기여하는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평가등급과 건물의 인허가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 그린빌딩 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성장, 진화, 발전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으로까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건물의 공학적인 성능 평가를 넘어서서 상이한 기후, 역사, 문화 등의 인문학적 요건까지 고려한 평가시스템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여러 시도들이 LEED v4와 Living Building Challenge 3.0에서 관찰되고 있다. 圖



LEED for Homes © kelownahome.com via bobvila.com

도일

글. 김성환 Kim, Sung-whan

Stefan Schmitz bda Architekten und Stadtplaner

땅이 가지는 의미, 두 번째 이야기 콜룸바 박물관

The Implication of Land, the 2nd Story Kolumba





Kolumba-Museum-27-Zumthor-Yuri-Palmi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7월호 '해외건축동향 – 독일'편), 건축이 도시 안에서 땅에 반응하여 과 거의 맥락을 담아내는 역할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건축이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도시에 안겨주는지를 눈여겨보고자 한다.

전쟁의 잔재와 재현

1943년, 독일군과 연합군의 대치 속에서 독일 서북부 도시 쾰른에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작전으로 인한 폭격이 있기 전까지, 성 콜룸바 교구(the Saint Kolumba parish)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시설이자 중앙기관이었다. 공습 이후 파괴된 잔재를 복원하지 않고 방치해두다가 1949년 당시 이 지역의 건축사 고프리드 뵘(Gottfried Böhm)이 그 잔재들을 모아 설계안을 제안한다. 이후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곳에 2003년 피터 줌터(Peter Zumthor)의 설계안이 실현되기 시작하여, 4년 뒤인 2007년 9월 현재의 모습을 가진 콜룸바 박물관(Kolumba)이 완성되었다. 당시 복원안의 목적은 과거 종교시설의 복구였으나, 건축사가 가진 사상과 폭격 이후 발견된 유물 및 교회 잔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박물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재료에 대한 진지한 탐구

피터 줌터는 초기 계획안부터 꾸준히 재료에 대한 신중함을 보였다. 부서지고 난 잔재들의 원료인 사암과 폭격 후에도 무사히 살아남은 벽들의 재료를 꾸준히 관찰하여, 한 장소에 남아있는,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구사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그 위에 새로움이 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영리하게 탐구하였다. 밝은 진회색으로 모르타르 마감이 된 듯한 외관은 독일 표준규격에 있지 않은 새로운 크기를 만들어 냈다. 폭격 이전에 건물이 가지고 있던 황갈색 사암벽돌이 주는 재료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내기 위해, 54cm×4cm 크기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벽돌을 준비했다. 이 벽돌은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줌터만의 어휘를 그대로 소화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고딕양식의 조각, 창 그리고 망루 등을 그대로 재현해 냈다. 이후 이 벽돌은 콜룸바 벽돌(Kolumba Fuellziegel)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승인을 받았다. 이 힘 있고 미니멀한 외벽과 내벽

은 합계 총 60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터 줌터는 점토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내부천장 모르타르 칠을 위한 콜룸바회색(Kolumbagrau)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창안해 냈다. 고운 점판암 입자가루 10%와 밝은 도자기 색의 고령토 90% 비율로 혼합된 재료에 셀룰로우즈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존 점토광물이 가지고 있는 점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 약한 점성으로 미니멀한 입면의 느낌이 더욱 강조될 수 있었다. 전체가 수작업으로 진행된 이 모르타르 칠은 기존 입면에서 2mm 정도의 깊이가 생기고, 물과 유제품(Quarkmilch 치즈커드)이 섞인액체가 그 위를 덮음으로써 마감된다. 이 곱고 세밀한 입자를 가진 내부입면은 이틀 동안의 시간을 거쳐 재료 자체가 은은하게 반사효과를 가질 수있을 때까지 건조된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일사광선 및 전시장에서 생기는 다운라이트는 건물의 모든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는 1개층 높이의 크기를 가진 창문이한몫을 한다. 창을 지탱하는 테두리가 전시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이 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내부공간으로 떨어지는 빛들은 재료가 가지는 특유의 회색에 다양하게 반사되어 매 전시공간마다 다른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회색빛 사암의 느낌을 주는 외벽, 패각 석회암에서 풍기는 입구부분의 어두운 회색,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의 느낌을 주는 비닥등은 굉장히 거칠고 남성적인, 동시에 숭고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장소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

이와 같이 오랜 시간과 수고를 요하는 공사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와 부 딪히게 된다. 공사비용은 3,600백만 유로에서 4,400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 시작된 공사는 2007년 9월에 완공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진행됐 다. 쾰른 대교구 당시 대변인 노버트 펠트호프(Nobert Feldhoff)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박물관은 현저하게 전도적이고, 목자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Dieses Museum hat eine eminente missionarische und pastorale Aufgabe."

그러나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어 당시 모든 언론과 일반인들은 '종교적인 시설에 필요 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도시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끊이지 않고 제기했다. 하지만 쾰른 대교구 측은 건축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피터 줌터의 역량과 재능에 자신들의 확신이 더해진다면 좋은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고, 그 좋은 건축물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쾰른 대성당과 함께 이 도시에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불어 기존의 장소성이 가지고 있던 맥락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건축물에 힘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소에서 발견되었던 많은 유물과 기존의 잔재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매개체, 즉 전시물로 연결되어 건물자체에 힘이 배가된 덕분이다.

1997년 공모전 당시 61개의 응모작 중 피터 줌터의 설계안이 당선되고 난 후, 주최 측에서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 베를린 Topographie des Terrors의 사례를 보며, "건축 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믿고 있다면 끝까지 지지해 줘야 하며,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터 줌터 또한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고, 결국 건축사와 건축주가 같이 고민한 끝에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圖



Kolumba_ Muster_ Gerhard Kahlert

회원작품.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설계자 | 최기철 KIRA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실무를 쌓다가 1990년부터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경영정책과정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부동산개발경영학 석시를 취득했다. SH공사 설계자문위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남북건축교류협력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설립추진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설계팀 : 이수열, 고민석, 김보겸, 이승현

• 전문기술협력

구조분야: 형상엔지니어링기계설비분야: 삼심설계㈜전기분야: ㈜일신이앤드씨

건축주 | 문화재청 감리자 | 동우 E&C 시공사 | ㈜현대건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96-1번지 일대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59,93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519.4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2,56%

용적률(Floor Area Ratio) | 34,3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세라믹 패널, 칼라복층유리, 화강석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7. 12 \sim 2009.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3 \sim 2013. 05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Client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rchitect | Choi, Ki-cheol

Project team | Lee, Soo-youl / Ko, Min-suk / Kim, Bo-kyem / Lee, Seung-hyun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Location | 896-1, Dongseohak-dong,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Hyungsang Engineering
HVAC & Eletrical Engineer | Sahmshin Engineers. inc
Electrical Engineer | Ilshin Engineering &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 Ceramic Panel, Color Pair Glass, Granite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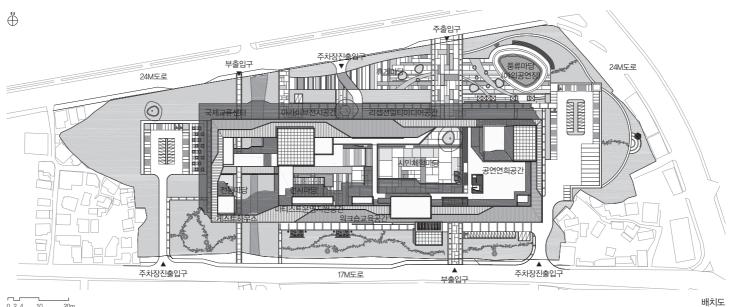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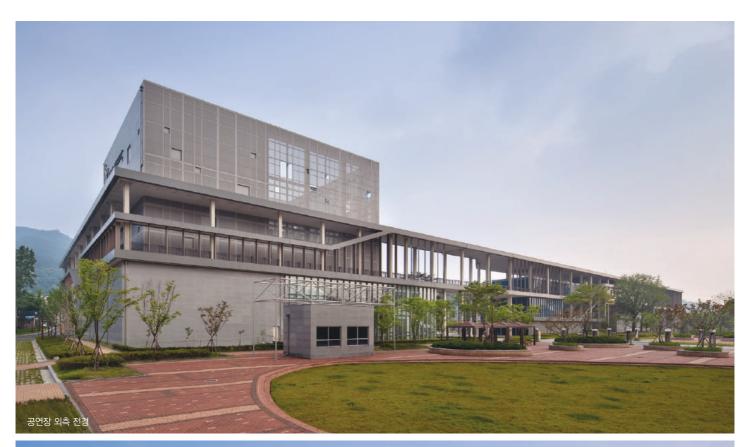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건축과 공간으로 유형화하는 '틀'이라는 개념으로 구현시킨 작품이다. '보존의 틀'이라는 개념 하에 무형유산의 가치와 틀 밖의 숲을 보존하기 위한 장으로 계획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8개의 센터와 각 센터 사이의 마당(외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당은 전통 조각보 개념을 도입하여 관람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전시, 공연, 전통공원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 공간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각보 마당과 8개의 센터를 이어주는 큰 '틀'은 복도와 데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회랑'이라고 한다. 네트워크회랑은 전통 궁궐건축의 회랑처럼 각 외부공간과 8개의 센터를 연결한다. 또한 기존 부지 밖의 숲과 지역주민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새로운 풍경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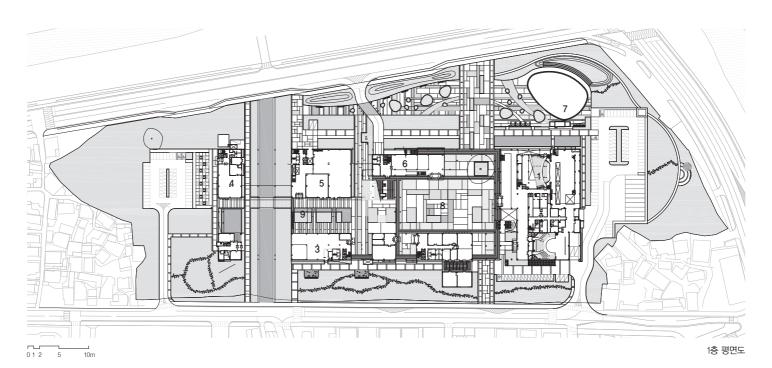








1. 공연 연회공간 2. 워크숍 교육공간 3. 아티스트 운영지원공간 4. 게스트하우스 5. 아카이브 전시공간 6. 리셉션 멀티공간 7. 풍류마당(야외공연공간) 8. 시민체험마당 9. 전통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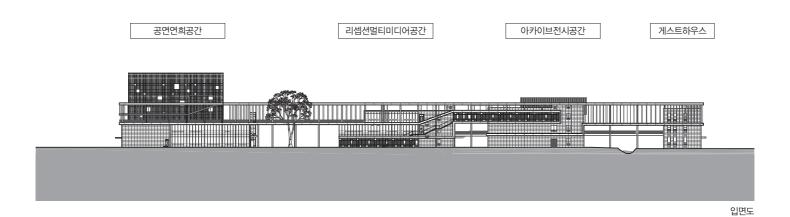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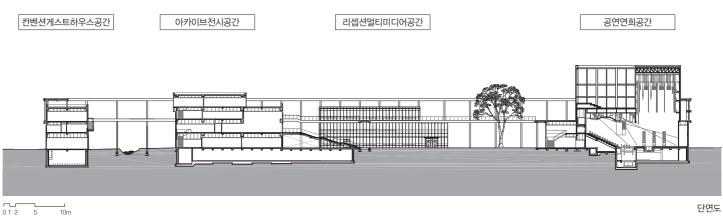












단면도

평택 gn 산부인과

gn Women's Hospital



설계자 | 황준_KIRA | 황준 도시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간연구소, 이로재, 타카마쓰 신 건축 사무소(日本), 北京金禹盟建築設計有限公司(中國), 삼우설계 등 에 근무했다. 2006년 황준 도시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주거시 설, 병원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성복동 주택, 오디오갤러리움 광원아 트홀, 가평주택, 대전 매그놀리아, 판교 P-1 주택, 판교 P-2 주택, 부산 S주택, 천안이산 삼성미즈병원, 일산 그레이스병원 신관 등 이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중이다.

• 설계팀: 박소영, 정윤경, 남해룡, 고주형

• 전문기술협력

- 구조설계분야: 티섹구조

- 인테리어분야: 누리디자인(정회경)

건축주 | 황준 도시건축사사무소 감리자 | 황준 도시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광원건설 + 누리디자인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90번지 주요용도 | 상업용지 제1종지구단위구역 대지면적(Site Area) | 1,009,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76,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5,941,3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6,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408,74%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내부 : 자작나무합판, 목재바닥판, 친환경페인트, 대리석마감재

외부 : 칼라복층유리, 아연판 접기, 인조목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2 \sim 2012,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2 \sim 2014, 05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ea)

Client | gn Women's Hospital

Architect | Hwang, June

Project team | Park, So-young / Hung, Yun-kyeong / Nam, Hae-ryong / Koh, Juu-hyung / Lee, Hyun-kyung / Park, Jin-ho

General Contractor | Gwangwon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090, Bijeon-dong,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T-SEC

HVAC Engineer | KL MEC

Electrical Engineer | KL MEC

Finishing | Thk24 Pairglass, Zn-plate

gn 산부인과는 평택의 소사벌택지지구에 위치한다. 건물의 서측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남측과 동측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대지와 가까운 곳에 평택시청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있어서 향후 평택의 새로운 도심이 되는 곳이다. 대지가 정남향이라 별다른 고려 없이 정남향으로 건물이 배치되었다. 가각전제가 된 직사각형이었으므로 건물 모서리가 사선이 되지 않도록 가각전제부분에 커다란 2층 규모의 아케이드를 만들어 건물의 주진입으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남측과 북측에 오픈공간을 H형태로 만들어서 건물의 모든 부분에 환기뿐 아니라 빛이 내부까지 유입되도록 한다. 내부의 벽체에 가능한 유리를 사용하여 자연광이실내까지 유입되도록 계획하여 병실의 화장실에도 자연광이 도달한다.

외부에서 보는 입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계획되었다. 유리와 아연도금패널만을 사용하였고, 돌출된 1층 아케이드의 외부에는 목재를 적용하였다. 입구 겸 다목적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2층으로 오픈된 아케이드 부분은 건물의 특징이 되고 있다. 1층 임대공간과 외래부분은 가급적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병실 및 산후조리원 개실은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적절한 천장고를 확보했다. 의료시설인 이유로 기능적인 치수를 기준으로 계획하였다.

인테리어 역시 단순한 구성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입면구성뿐 아니라 각 재료의 연결 및 마무리에 대해서도 매우 단순하고 근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 다. 또한 유리벽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내부 마감재는 자작나무 합판과 아이보리 색의 최고 품질의 외산 친환경 도장으로 마감하였다. 산부인과라는 특수성에 맞도 록 내부에 사용되는 벽체. 천장재 모두를 친환경 페인트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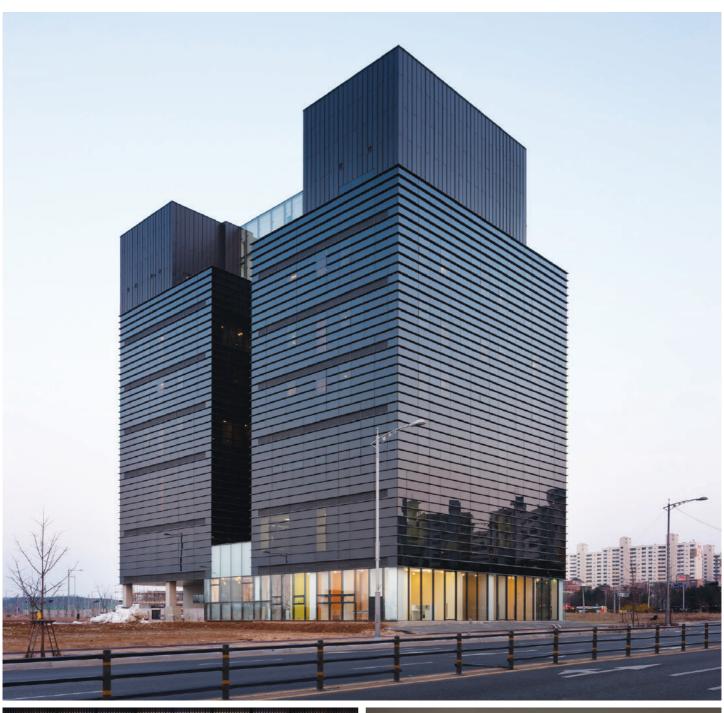
진료실 일체형 가구, 카운터, 붙박이 가구 등은 각각의 특성 및 중요도에 맞도록 자작나무, 인조대리석 등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단순하게, 하지만 기능적으로 계획되었다. 모든 복도와 병실, 산후조리원실은 일반적인 다운라이트를 최소로 줄이고, 평소 간접조명만을 사용하여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색상이 좋은 LED 조명을 사용하였다.

건축주이신 원장님들과는 건축적인 문제뿐 아니라 건물을 짓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까지 고민을 함께하며 일이 진행되었다. 건축주와의 협의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뿐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건물이 완성 되어 사용되는 시점까지 설계자의 의도를 적극 승낙하신 건축주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수십차례 현장회의와 그 결과로 발생한 수많은 개선부분과 수정사 항들에 대해 성심성의껏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주신, 시공사 광원건설과 인테리어시공사 누리디자인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good news'라는 의미와 같이 '좋은 소식'을 보다 많은 산모들과 그 가족에게 전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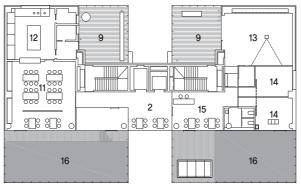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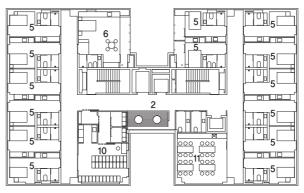




- 1. 아케이드
- 2. 홀
- 3. 소아과
- 4. 근린생활시설
- 5. 개실
- 6. VIP 개실
- 7. UTIL
- 8. 린넨실
- 9. 중정
- 10. 신생아실
- 11. 식당
- 12. 주방
- 13. 강당
- 14. 에스테틱
- 15. 대기실
- 16.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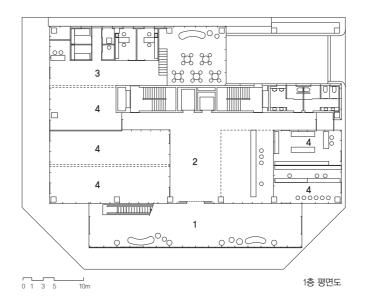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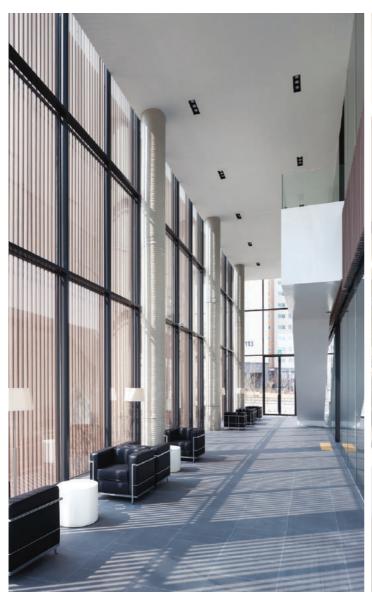


6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 아케이드 2. 홀 12. VIP 개실 13. 식당 3. 주차장 14. 대기실 15. 옥상정원

4.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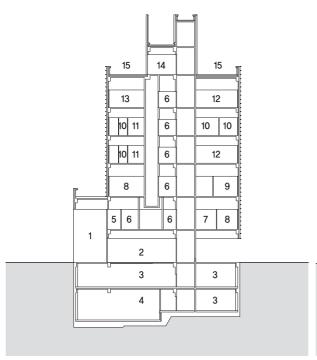
5. 요실금실 16. 소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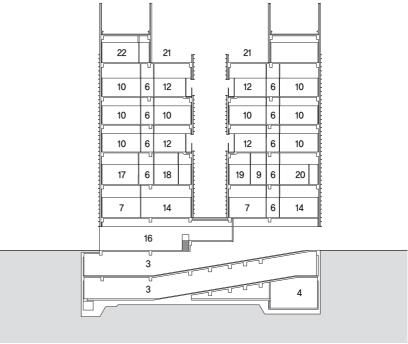
6. 복도

7. 진료실 17. 신생아실 18. 수유실

8. 회복실 19. 당직실 9. 의국

10. 개실 20. LDR실 21. 중정 11. UTIL 22. 주방





회원작품

推越 자연과 인간의 연결

Connection Between Human and Nature



설계자 | 이동현 _KIRA | 건축사사무소 아원

1995년부터 건축사사무소 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림대학 (2004~2007)과 부천대학(2003~2012)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초구청 OK민원실 건축상담위원 및 서초지역건축사회 부회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개포5공원 공중화장실, 금곡 동 단독주택, 탄현 메디누리병원 등이 있으며, 화곡6-1지구 공영주 차장, 강남일원동 복지관, 인천화력사택 리모델링, 도산서원 수련 원 외 다수의 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다.

• 설계팀 : 노학진, 유임철, 이민호, 홍창우, 정민경, 김현곤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 전기분야 : 엘림전설 - 기계설비분야 : 동도MEC

건축주 | 박찬홍

감리자 | 신진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박찬홍

대지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54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683.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6,0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3,3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2%

용적률(Floor Area Ratio) | 35.63%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 | T30대리석(예루살렘로얄엔틱), 탄화목, T24로이복층유리, T32로이삼중유리

Client | Park, Chan-hong

Architect | Lee, Dong-hyun

Project team | Rho, Hak-jin / You, Im-cheol / Lee, Min-ho / Hong, Chang-woo Jeong, Min-gyeong / Kim, Hyun-gon

General Contractor | Park, Chan-hong

Location | 154, sungam-dong, Danwon-gu, Ansan, Gyeonggi

Structure | R.C. Rahmen

Structure Engineer | Dohwa Structural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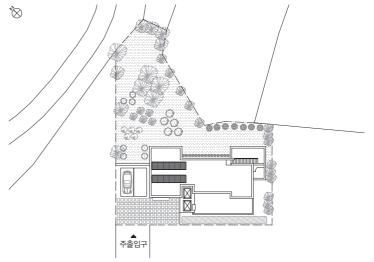
HVAC & Eletrical Engineer | Dongdo Mec

Electrical Engineer | Ellim

Finishing Materials | T30 Marble(Jerusalem Royal Antique), Thermo Wood,

T24 Low-E Double Glazing, T32 Low-E Triple Glazing







"마시는 것은 차(茶)이되 마음에 남는 것은 추억이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건축 주는 은퇴를 앞두고 바다와 산을 오감으로 안아볼 수 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채움의 계획이 아닌 비움의 계획이었다.

여러 가지 레이어를 수없이 겹치는 채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를 지움으로 써 단순하고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는 그러한 계획을 진행하였다.

비움으로써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주택을…

자리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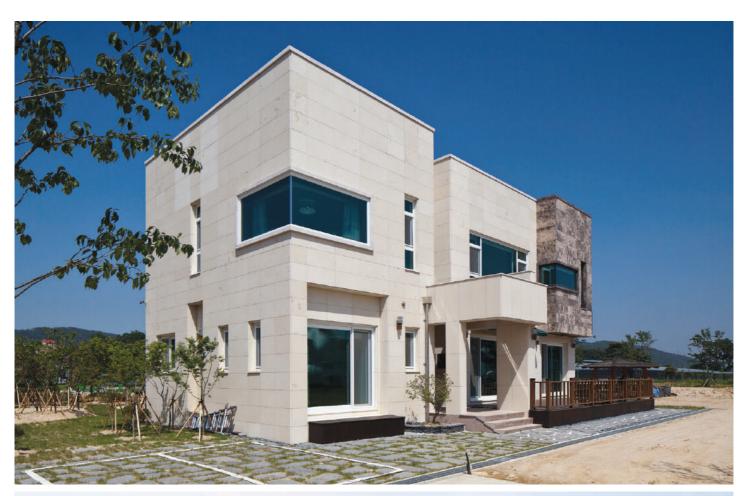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경관을 바라보는 정자의 기본개념을 접목하여 한옥의 터잡기와 풍수지리 개념으로 배치계획 및 공간구성을 도모하였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비우고… 이곳의 대지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기본 구조를 가진 대지

이며, 낮은 자세의 규모가 앉아보기를 꿈꾸는 건축주의 이상과 같을 거라 판단되었다.

자연의 흐름을 위해 동측에 조경식재를 조성하고 노천탕을 2층, 안방을 서측에 배치하였으며, 노부모를 위한 툇마루 공간, 바다와 맞닿은 남쪽에는 낮은 조경 등을 조성하여 비움과 채움을 구성하였다.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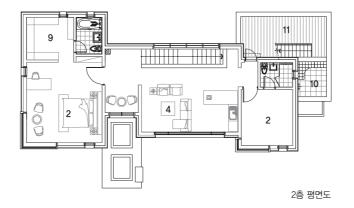
바다를 앞에 두고 들어오는 첫 모습은 정갈하고 소탈하게 다가오는 단아한 외관으로 계획하였다. 자연의 흐름이 주택의 매스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넓은 창을 두어 자연의 흐름이 내부까지 이어지길 바랐다. 이에 따라 지상i층~2층 어디에 서든 넓은 바다를 조망하고 느끼며 만져볼 수 있길 바랐다. 부디 고단했던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의 품에 온연히 안길 수 있길 희망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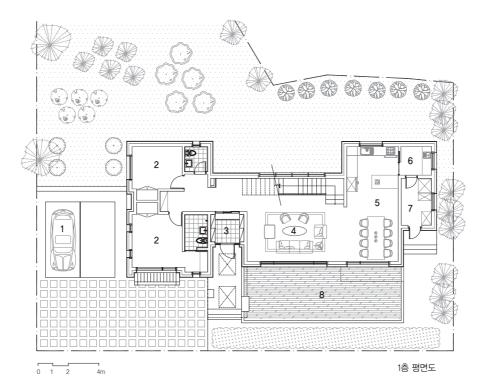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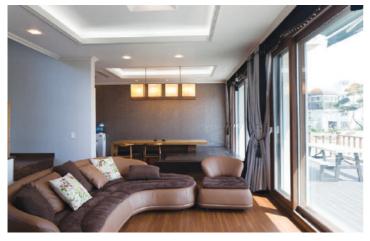
- 1. 주차장
- 2. 침실
- 3. 현관
- 4. 거실
- 5. 주방 및 식당
- 6. 다용도실
- 7. 보일러실
- 8. 데크
- 9. 드레스실
- 10. 노천탕
- 11.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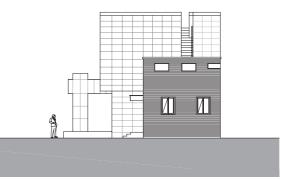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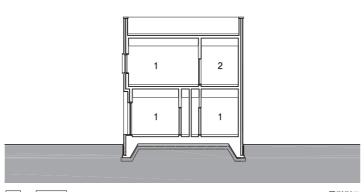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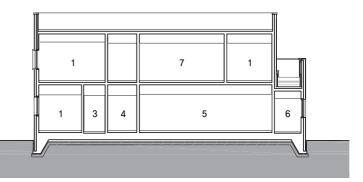






1. 침실 2. 드레스실 3. 욕실 4. 현관 5. 거실 및 식당 6. 보일러실 7. 거실 및 홈바





종단면도

횡단면도

회원작품.

청연재 淸緣齋

Cheong Yeon Jae



설계자 | 김성은_KIRA | 연경당 건축사사무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문화재 실측기술자로도 활동 중이며, 한옥의 현대화와 사찰 디자인의 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라공사 「김포한옥마을」 현상설계 당선 경력과 「원각사 복원 기본계획」、「가회동 한씨 가옥 연혁」의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종로구청 건축전문 감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설계팀 : 천용준, 최우정, 유영란

• 전문기술협력

기계설비분야: 세원 엔지니어링전기분야: 세원 엔지니어링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연경당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북촌건설(손창원 대목)

대지위치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92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07.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98.9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7.50%

용적률(Floor Area Ratio) | 47.5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1층

구조 | 한식목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 : 사고석담장, 아자살, 한식회벽

내부 : 연등천정, 우물마루, 한식도배지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12 \sim 2013,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 \sim 2013, 11

Client | Individual

Architect | Kim, Seong-eun

Project team | Cheon, Yong-joon / Choi, Woo-jeong / Yu, Young-an

General Contractor | Bckchon Constrution

Location | 192, Kahoe-dong, Jongno-gu, Seoul, Korea Structure | Korea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SEWON

Electrical Engineer | SEWON

Finishing Materials | EXE : Granite Stone, Korean Style Window, Korean Style Varnish

INT : Wood Structure Ceiling, Korean Style Wood Flooring Korean Style Wall Paper







한옥과 건축사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옥은 목수가 짓는 집이고, 건축사의 역할은 없으며, 건축 설계비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있다.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집이 세워지면서 건축사의 필요성과 건축설계의 중요성을 차츰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옥에서도 다른 건축 장르와 마찬가지로 건축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집의 좌향과 방향 설정, 동선과 공간감의 규정 그리고 디테일의 통합과 조정 등 많은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청연재와 같이 기존 한옥을 리모델링 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배가되는 느낌이다. 한옥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 봉건시대에는 직종 분류가 현대처럼 세분화되지 않아 지금의 건축사의 역할을 건축주나 학식 있는 선비, 승려 그리고 경험 많은 도편수가 분담하여 진행하였는데 현대에는 전문 직종으로 한옥설계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 여러 사람이 갖추었던 식견이 현대에 와서는 한옥건축사 한 명에게 요구된다. 현대의 한옥전문 건축사는 인문적인 지식이나 대목의 기술적인 경지 그리고 문학적인 식견을 체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될 것이다.

좋은 인연의 집-청연재

어릴 적 한옥에 살던 추억을 간직한 건축주는 북촌한옥을 갖게 된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설계과정에서 한옥 특성과 공간구성 방식들을 설명하면서 현대건축 구성에 굳어 있는 건축주의 사고방식을 한옥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W.처칠의 말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났다. 어릴 적 한옥체험은 추억일 뿐 오랜기간 현대건축에 익숙한 건축주에게 한옥공간의 구법은 낯설고 어색한 방식이었다.

본 계획부지는 전체적으로 남저북고의 서울 북촌에서 낮은 위치, 즉 북촌 진입부에 해당한다. 청연재(淸緣齋)는 대지면적 207㎡(62평)로 인근 가회동 단독주택 필지에 비해 큰 편에 해당한다. 공사 전 기존의 한옥은 디자형 한옥이었는데, 부재가 양호하여 최대한 과거의 건축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고, 일부를 증축한 행랑채 부분에 중문(中門)을 설치하여 마당의 성격을 행랑마당과 안마당으로 구분하였다. 행랑마당은 건물의 도입부로 전이공간의 의미를 두었으며, 사랑마당은 작은 크기이지만 사적(私的)인 영역으로 디자인하였다. 안마당은 생활공간이자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동선의 흐름과 심리적으로 구심점이 되게 계획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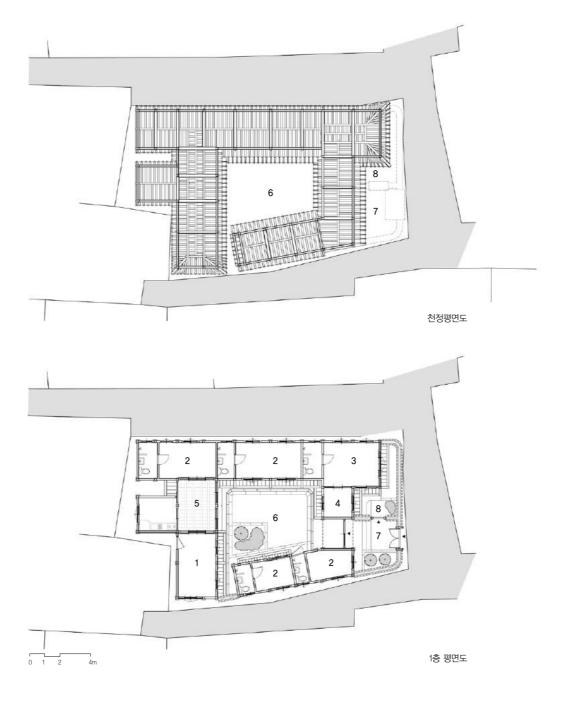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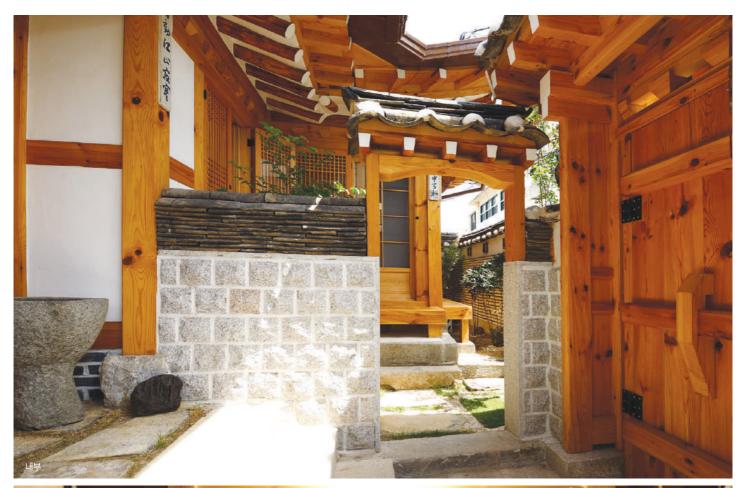




- 1. 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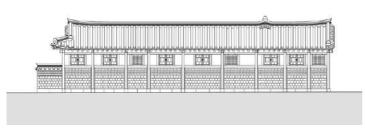
- 1. 안방 2. 방 3. 사랑방 4. 문간방 5. 대청 6. 안마당 7. 행랑마당 8.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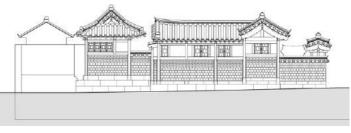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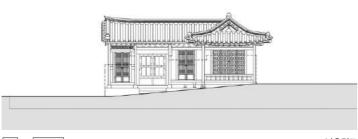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일성 트루엘

Ilsung True L



설계자 | 노윤경 KIRA | ㈜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우리동인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축사시험출제위원, 동대문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중랑구 청소년수련관(2002),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2004), 구로구 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2004), 개봉동 미소들 실버요양원(2006)등이 있다.



설계자 | 한상범 | ㈜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건축문화 연구소, 엑토건축, 이지건축, 토우건축에서 근무하였다. 한국건축 문화대상 신인부 대상(1995)과 우수상(1996)수상, 김태수 해외여행 장학생에 선정(1997)된 바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시흥3동사무소(2002), 서초구횡성수련원(2003), 강화민속정(2004), 부천 해밀 도 서관(2005), 인천서구교육청 청사(2006)등이 있다.

• 설계팀 : 김두환, 왕명수

• 전문기술협력

구조분야: ㈜성진구조기계설비분야: 한길이엔씨전기분야: ㈜진원엔지니어링

건축주 | 동방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 감리자 |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노윤경

시공사 | 일성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관약구 신림동
주요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026,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15,75㎡
연면적(Gross Floor Area) | 23,320,2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99%
용적률(Floor Area Ratio) | 448,77%
규모(Building Scope) | 지하4층 ~ 지상1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복합판넬, 타공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7 ~ 2011,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5 ~ 2013, 11
사진(Photographer) | 김재경(Kim, Jae—gyeong)

Client | Dongbang market maintenance business union Architect | Roh, Yoon-kyung / Han, Sang-beom

Project team | Kim, Du-hwan / Wang, Myeong-su

General Contractor | Ilsung construction

Location | Sillim-dong, Gwanak-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Sung-Jin Structure

HVAC Engineer | Han Gil ENC

Electrical Engineer | Jin Won Engineering

Finishing | Exposed Mass Concrete, Complex Panel, Punch Me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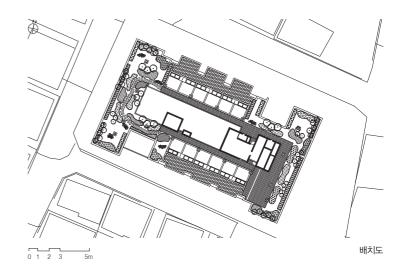
일명 고시촌으로 불리는 이곳은 2008년에 신림9동에서 대학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였다. 거주자들이 대부분 고시 준비생들이기 때문에 학원, 독서실, 고시원, 식당, 부동산중개소 등이 밀집해 있으며 슈퍼마켓, 서점, 문방구, 약국 등이 흩어져 있다. 본 설계는 지하访층~지상4층 규모의 시장 용도를 갖고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조직 속에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건설회사의 경제적인 목표와 시장 건물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조율하는 것이 설계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주변의 필지별 토지 규모가 대부분 약 200~400㎡로 구획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곳은 3,000㎡로 주변 건물에 비해 큰 규모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감안 하여 외관계획은 1~4층의 저층 상가부와 6~11층의 상층부 소형주거부의 패턴을 달리하고, 5층을 필로티 시켜 수직적으로 분절하였다. 수평적으로는 상층부 주거 부분을 몇 개의 볼륨으로 나누어 주변 건물들과의 크기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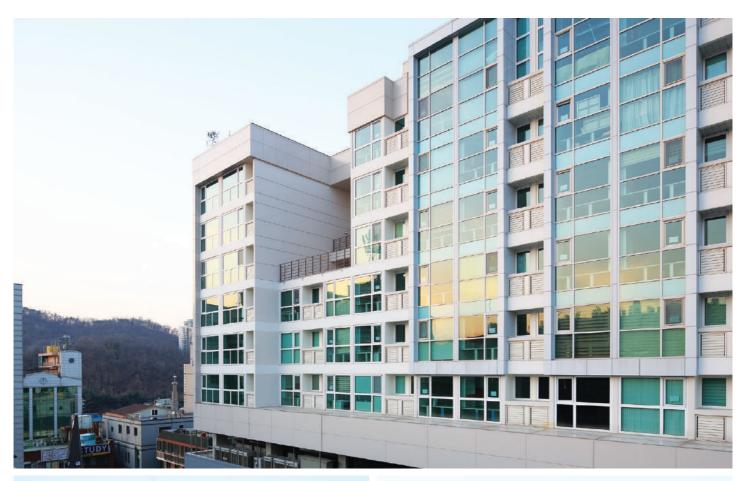
건물을 주도로에서 후퇴시켜 만들어진 전면도로변 공지와 공지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5층 필로티에 설치된 정원은 높은 밀도를 가진 주변 도시조직에 숨통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층 정원에 위치한 북카페는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만남과 휴게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층과 저층부 상가부분은 오픈 플랜으로 구성하여 건물의 용도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층부 주거부분(오피스텔)은 중 앙부를 오픈시켜 중정을 만들었다. 이는 공간을 수직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거주 민들의 접촉 빈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채광과 통풍 등을 가능하게 하여 주거의 쾌적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정의 일부는 저층부까지 연속시켜 상가에도 최소한의 자연환경이 침투되도록 하였다.

본 건물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조율과 통합, 인허가 과정상의 어려움,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탄생되었다. 그러나 로스쿨(Law School)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주인구가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약 10 여년에 걸친 재탄생의 고통이 빛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아무튼 어렵게 재건축된 동방시장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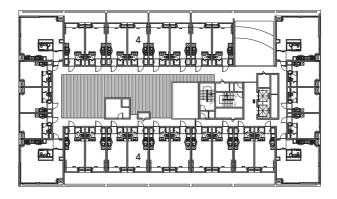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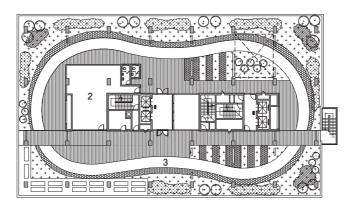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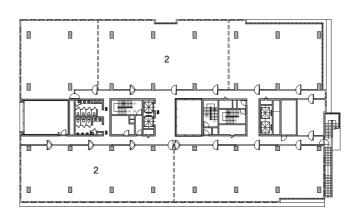
- 1. 판매시설
- 2. 교육연구시설
- 3. 쉼터
- 4. 업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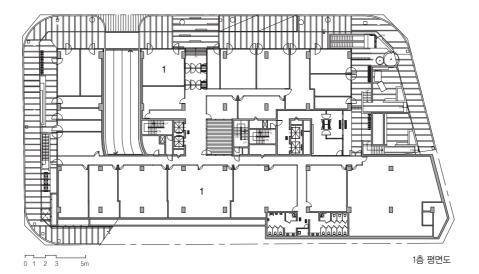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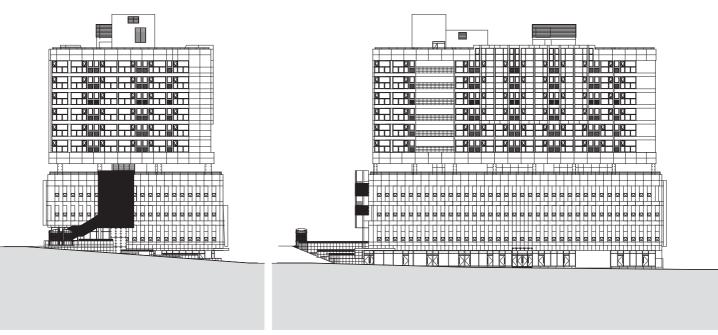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62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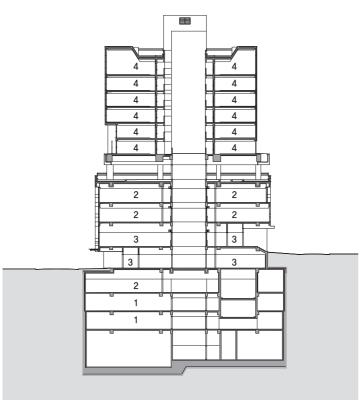








1. 주차장 2. 교육연구시설 3. 판매시설 4. 업무시설







0 1 2 3 5m

종단면도

석계경기



예산군 신청사 당선자

Yesan Government Complex

발주자 : 예산군청

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 : ㈜이엔지에너지연구소 - 전기/통신 : ㈜삼우티이씨 - 토목 : ㈜오주엔지니어링 - 조경 : 조경디자인 린 - 친환경설계 : ㈜싼앤라이트

- 인테리어 : BMB

대지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도시개발사업 2블럭 공공청사용지

주요용도 공공청사 대지면적 35,397㎡ 건축면적 8,088,28㎡ 연 면 적 19,925,97㎡ 건 폐 율 22,85%

용 적 률 43.2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t층 ~ 지상8층

 주요마감
 로이복층유리, 석재, BIP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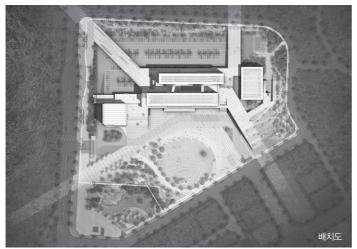
예산군 신청사는 업무공간으로서의 청사를 넘어 지역주민과의 화합·융화를 도모하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절약형 청사 건립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본청청사, 의회청사 및 각종 주민편의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예산화첩'을 컨셉으로 역사, 사람, 그리고 자연에 초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야외공 연장을 포함한 '예산마당'을 청사 전면에 둠으로써 보다 개방되고 열린 배치를 추구 하였다. 대지의 고저차와 데크를 활용한 배치계획을 통해 다양한 시설 간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다양한 접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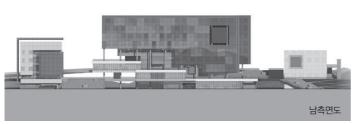
본청청사의 계획은 자연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류환경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하였으며, 사무공간의 오픈플랜으로 업무효율성과 향후 가 변성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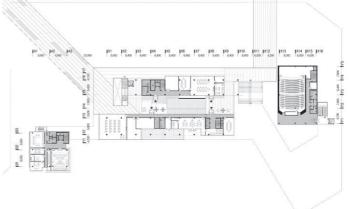
청사의 입면은 1,100년 예산의 풍경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캔버스를 모티브로 창면적 비율 37%, 그리고 로이복층유리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를 적용함으로써 차 별화된 미래형 친환경 청사를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계획하였다. 圖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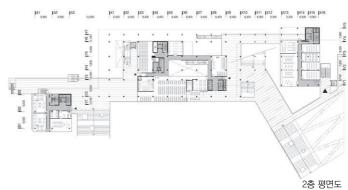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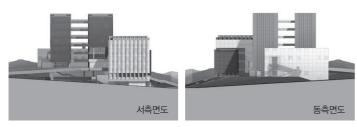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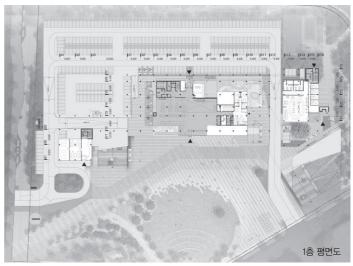












건축과 법률이야기.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의 의미

What Does it Mean to be, the Association Board that Violates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itself?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 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 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 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 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 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 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도정법 제4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도정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도정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도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 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 이 될 계약, 시공자 ·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 ·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도정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도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도정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 지급(분할징수 ·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 산시의 회계보고,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제86조 제6호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도정법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도정법 제86조 제7호는 '도정법 제8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8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

정법 제8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 · 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 조합은 '제13조에 의한 조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13조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그 조항 이하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이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조합은 그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제86조 제6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7호 위반죄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도정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정법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 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 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수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도정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정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제86조 제6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7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85조 제5호 위반죄, 제86조 제6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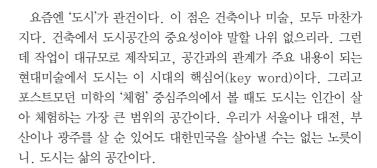
건축과 미술(4/6)

글. **전영백**_ Chun, Young-pai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정교수

건축을 위한 미술의 제안: 현대 작가(Contemporary Artist) 6人의 '건축적' 미술작업

4.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그래서 그런지 세계의 도시들은 각자의 랜드 마크를 내놓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도시의 특성과 역사를 함축하는 대표 건축이 없는 도시는 없다. 그러한 건축들은 그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여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역사적 건축물은 지나간 과거의 삶을 '지금, 여기'의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건축물은 오늘날의 도시를 대변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미술작업 또한 도시공간과 직결돼 제작된다. 말하자면, 도시는 건축과 미술이 만나 협업을 이루는 궁극적 '장소 (locus)'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도 1)의 작업이 건축가와 공학자의 협업으로 이뤄져 도시의 대표작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의 작업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 또한 시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카푸어 작업의 특징은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 건축물은 종종 몸(body)과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본 구조인 오목과 볼록의 구조를 지니고, 색채 또한 대체로 선홍색(핏빛)이다. 그리고 놀랄 만큼 섬세한물감처리와 공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관람자의 지각 체험을 의도한다. 그리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충격효과가 동반된다. 충격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영국 리즈 대학교(Univ. of Leeds)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2년 이래 영국(런던) 학술지 'Journal of Visual Culture'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해외출판(Blackwell, Routledge 등)에 주력해 왔다. 「세잔의 사과」(문광부선정 우수학술도서)와 「22명의 예술가, 시대와 소통하다: 1970년대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자화상」등 10권의 저서와 17편의 논문을 출판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관장, 동아시아 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미술사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엄청난 규모와 재료의 파격, 그리고 정해진 구조를 탈피하는 해체 와 카오스에 기인한다.



도1)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 ~)

카푸어의 작업은 1980년대 초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90 년부터는 미술계의 '월드 스타'라 불릴 정도이다. 그 해, 그가 베 니스 비엔날레에서 영국을 대표했을 때 그는 '프레미오 두에밀라 (Premio Duemila)'라는 중요 상을 받았으며. 1991년에는 영국 의 자랑인 터너 상(Turner Prize)을 수상했다. 그의 작업은 근본 적으로 건축적 체험을 유도한다. 그리고 건축에 따라 '맞춤'으로 제 작해 내는 점이 특색이다.

세계 주요 도시와 카푸어 전시

베를린의 카푸어: 생생한 역사의 암시

최근. 카푸어의 대규모 전시로는 2013년 베를린 그로피우스 미 출관(Martin-Gropius-Bau)에서의 개인전을 들 수 있다.(도 2) 신(新)르네상스 스타일 건물의 가운데 공간(atrium)에 엄청난 규 모의. 태양같이 둥그런 선홍빛 디스트가 핏빛의 왁스 더미 위에 설 치되었다.(도 3) 완벽한 동그라미 조형과 무정형의 물감 더미가 대 조를 이뤘다. 그리고 왁스 덩어리는 위층에서 아래 층 사이 공간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컨베이어 밴드에 의해 운반됐다. 그리고 내리치 는 큰 소리와 함께 아래로 곧추 떨어졌다.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왁 스물감은 아래에 흐트러지며 쌓여갔다.



의 카푸어 Kapoor in Berlin》 전시 포스터(18th May - 24th November 2013)



도2) 베를린의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tin- 도3) 아니쉬 키푸어, (사랑하는 태양을 위한 심 Gropius-Bau, Berlin)에서 열렸던 《베를린 포니 Symphony for a Beloved Sun》, 왁스, 철, 캔버스와 페인트(wax, steel, canvas and paint) © Anish Kapoor / VG Bildkunst, Bonn 전시장 전경: 베를린의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tin-Gropius-Bau, Berlin), 2013. Photo by Jens



도3) 아니쉬 카푸어 〈사랑하는 태양을 위한 심포니〉의 전시 전경



이 〈사랑하는 태양을 위한 심포니 Symphony for a Beloved Sun〉는 카푸어 작업의 전형적 방식 중 하나인 움직임을 동반한 무 (無)정형의 물감작업이다. 그런데 이 작업은 베를린의 그로피우스 미술관이 가진 독특한 역사를 암시하는 '맞춤' 작업이란 점이 주목 해야 한다. 일종의 '장소 특정적' 작품이었는데, 작가는 "이 설치 는 불가피하게도 이 도시, 이 장소, 이 나라, 이 역사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컨대. '베를린의 카푸어'는 '파리의 카푸어' 및 '런던의 카푸어'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를린은 아무래도 유태인 학살(Holocaust)과 떼려야 뗄 수 없 는 도시이다. 〈사랑하는 태양을 위한 심포니〉는 나치에 의해 자행 된 6백만 유태인들의 기계적 살인을 회고케 한다. 전시가 흥미로 운 것은 역시나 건축과의 관계이다. 전시 공간인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는 2차 대전 때 파괴되고 1981년 재개관된 고전 건물이다. 그 런데 그 옆은 바로 나치 집권 시기, 공포스런 비밀경찰 게슈타포 (Gestapo)의 본부이다. 창문을 통해 방문객은 냉전으로 서독과 동독을 나눈 베를린 장벽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카푸어의 과제는 19세기 후반의 신(新)르네상스 건물의 장식적 내부를 작업과 조화시키는 것과. 이 건물을 둘러싼 베를린의 역사 를 작업과 연관시키는 일이었다. 작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면서 도 커다란 도전의 전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 건물은 베를린 의 역사에 연관된 '어려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에 연관되지 않는 전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였 다. 작업의 내용 자체가 건축물과 밀착돼 있는 것이다. 자극적 핏 빛 재료의 시각적 자극성과 왁스라는 재료가 전달하는 실제적 촉각 성은 피비린내 나는 대량학살을 은유적이면서도 실감나게 다뤘다. 이러한 연관성은 그의 다른 작품인 〈코너를 향한 발사 Shooting into the Corner \(\)(2009~2013)(도 4)에서도 볼 수 있다. 대 포가 흰 벽에 빨간 물감을 쏘아대는 설치였다. 대포가 빨간 왁스의 동그란 덩어리를 먼 코너에 쏘아 벽을 핏빛으로 흥건히 물들인 '잔 인한' 작업이었다.



도4) 아니쉬 카푸어, 〈코너를 향한 발사 Shooting Into the Corner〉, 2009~2013, © Anish Kapoor, 전시장 전경: 마틴-그로피우스-바우 (Martin-Gropius-Bau, Berlin), Photo by Nic Tenwiggenhorn

카푸어의 이 아트리움 작업은 러시아 구축주의에 대한 헌정이었 다. 시각적 스펙터클이 충격적인 이 설치는 말레비치(Malevich) 의 "태양에의 승리(Victory Over the Sun)"라는 오페라에서 영 감을 받았다(도 5) 말레비치는 그의 유명한 검은 사각형을 이 오페 라에서 최초로 소개했다. 〈사랑하는 태양을 위한 심포니〉는 또한 카푸어의 '영웅'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에 대한 헌정이기 도 했다. 보이스는 카푸어와 같은 공간에서 전후 재건 이후 1982 년에 전시를 가졌다. 카푸어에게 베를린은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 다. 그는 "이곳은 분리된 삶의 방식을 갖는다. 이것은 대안의 도시 (a city of the alternative)이다"라 말했다. 그의 작업은 베를 린의 처절한 역사만큼 격렬하고 과격하게 보였다.

{〈첫 번째 몸 1st Body〉(2013)(도 6), 〈리바이어던의 죽음 Death of Leviathan $(2011 \sim 2013)$ ($\subseteq 7$)





도5) '태양에의 승리' 재상연 장면, 1983, BAM 'Next Wave Festival'(Original 상연은 1913년 12 월 3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있는 루나 파크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도5)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오페라 '태양에의 승리'의 무대 배경을 위한 스케 치〉, 1928, Vladimir Tsarenkov Collection





도6) 아니쉬 카푸어, 〈첫 번째 몸 1st Body〉, 2013, 합성수지(Resin), © Anish Kapoor, 전시장 전경: 마틴-그로피우스-바우 (Martin-Gropius-Bau, Berlin)





도7)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의 죽음 Death of Leviathan〉, 2011-2013, 폴리염화비닐 (P.V.C), © Anish Kapoor, 전시장 전경: 마틴-그로피우스-바우 (Martin-Gropius-Bau, Berlin)



도8) 아니쉬 카푸어의 〈궤도〉 스케치

뤄진 이 조형물은 당시 영국인들을 흥분시켰다. 물론 미탈社 (ArcelorMittal)²⁾의 자본이 뒷받침되었기에 115 미터의 거대한 건축적 조형물의 완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직접 올라가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의 역할도 겸한 이 건물은 미술, 건축, 공학, 그리고 자본이 말들어낸 종합작인 셈이다.

도8) 아니쉬 카푸어, 〈궤도 Orbit〉, 철(steel) 설치 전경: 런던의 퀸 엘리자베스 공원(Queen

런던의 카푸어: 건축과의 협업이 나은 결실

2012년 런던 올림픽 기념 조형물 〈궤도 *Orbit*〉(도 8)로 대중에 게 익숙해진 카푸어의 이름에는 각종 권위적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현 세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조각가', '영국미술의 대표 주자, 생존 작가 중 로열아카데미 최초 개인전(2009)을 가진 작가'등. 그가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로 영국을 대표했고 이듬 해 터너 상을 수상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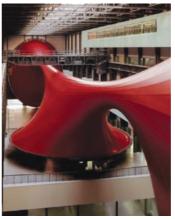
영국의 랜드 마크인 〈궤도〉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켰 다. 카푸어와 세실 발몬드(Cecil Balmond)1)의 협업으로 이

- 1) 세실 발몬드(Cecil Balmond)는 런던 기반의 세계적인 '구조 디자이너(structural designer)' 혹은 엔지니어 기반의 건축사다. 세계에서 혁신적으로 손꼽히는 현대 건축물을 만든 그의 대표 작으로는 베이징의 CCTV 빌딩이 있으며, 런던 서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온의 여러 커미션을 맡아 왔다.
- 2) ArcelonMittal 채는 2006년 6월, 당시 세계 1위 철강업체인 미탈철강(Mittal Steel)과 2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 채의 합병으로 창립되었다. 인도 출신의 락시미 미탈(Lakshmi Mittal)이 대표인 미탈철강은 1976년 설립된 회사로, 여러 번의 인수합병을 거친 세계적인 대기업이다. 이 기업은 〈궤도〉의 제작비인 19.1million 파운드(한화 약 320억원) 중, 16million 파운드(한화 약 270억 원)을 담당했다.

"나는 불안정함의 감각을 조성하고자 했다.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카푸어는 말했다. 전통적 으로 타워는 구조에 있어 안정적인 피라미드식이다. 그러나 우리 (카푸어와 발몬드)는 그 반대를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유동적으 로 움직이는 형태, 특히 조형물에 들어가 걸어 올라갈 때 그 감기 는 형태가 불규칙적인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 대형 오브 제는 관람자에게 어느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인식될 수 없다. 우 리는 그 오브제를 둘러 올라가고 이를 관통하는 여정을 갖게 된다. 작가는 "바벨탑처럼.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진정한 참여를 요구하 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

〈궤도〉와 더불어, 카푸어가 발몬드와 협업한 대표적 대작으로 2002년 테이트 모던의 터바인 홀(Turbine Hall)을 채웠던 〈마르 시아스 Marsyas〉(도 9)가 있다. 이 역시 세계인들에게 런던의 인 상을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테이트의 유니레버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테이트 모던의 홀을 가득 채웠다. 트 럼펫 모양의. 신체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인 〈마르시아스〉는 PVC 막과 여기에 연결된 세 개의 철 고리로 구성된 작품으로. 길이는 150m, 높이는 약 10층에 달한다. 두 개의 철 고리는 수직으로 위 치되어 공간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한 고리는 수평으로 눕혀져 있으며, 작품은 마치 벗겨진 피부처럼 펼쳐져 있다. 세 개의 단단한 철 구조로 의해 만들어진 기하학적인 구조는 조각의 전반적 인 형태를 구성하는데, 조각의 형태는 수직에서 수평, 그리고 다시 수직으로 변화한다.

카푸어는 PVC 막이 벗겨진 피부와 같다고 묘사하였다. 작품의 제목 '마르시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에 의해 산채로 껍질 벗겨진 사티로스를 지칭한다. 조각의 붉은 색은 무언가 '육체적이 고 신체적인 것'을 암시한다. 카푸어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육체 를 만들고 싶었다'('I want to make body into sky')고 언급한 바 있다. 〈마르시아스〉는 단색의 색채로 관람자를 흡수하며 공간 을 지각하려는 관람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어떠한 위치에서도 조 각의 전체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분적인 지각을 통해 관 람자는 전체 구조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건축적 조각은 언 제나 주체의 지각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며 제작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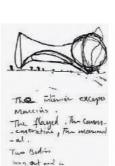
2002. 폴리염화비닐, 철(PVC, steel) 전시 사진 장 전경: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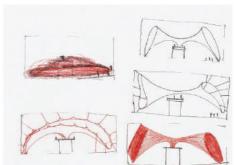


도9) 아니쉬 카푸어, 〈마르시아스 Marsyas〉, 도9) 아니쉬 카푸어 〈마르시아스〉의 다른 각도



도9) 아니쉬 카푸어 〈마르시아스〉의 다른 각도 사진





도9) 아니쉬 카푸어 〈마르시아스〉의 설계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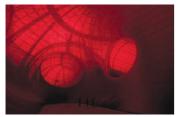
파리의 카푸어: 센세이션과 전격적 교감

건축. 엔지니어. 조각의 협업은 또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2013년 5월 파리, 카푸어는 〈모뉴멘타(Monumenta)〉전의 영광 의 주인공이 되면서 서구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작가로서 그 특권 적 위치를 확인받은 셈이다. 당시 4회째를 맞는 모뉴멘타는 서구 최고의 작가들(안젤름 키퍼, 리차드 세라, 크리스티안 볼탕스키)에 이어 그에게 그랑 팔레(Grand Palais)라는 아름답고 역사적인 건 축 공간에서 멋진 전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리바이 어던 Leviathan〉(도 10)이란 제목의 카푸어의 모뉴멘타는 그야 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전시의 오픈 전까지 극비리에 붙여진 그의 건축적 조각의 전모를 대면한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 그들의 첫 반응은 예외 없이 외마디 감탄사 - "와우!" 였다.



도10)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 Leviathan〉, 도10)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의 설치사진 2011, 폴리염화비닐(PVC), 33.6×99.89× 72.23m, 전시장 전경: 그랑 팔레 2011(Grand Palais 2011)





도10)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의 내부 사진 도10) 아니쉬 카푸어 〈리바이어던〉을 찍는 관



람객들 Photo by Sarah Lee for the Guardian

그랑 팔레의 〈리바이어던〉⁴)은 그 규모에 있어 이제껏 보지 못한 크기로 관객을 압도하며 미적, 물리적인 충격을 안겨 주었다. 관객 이 들어서서 마주하게 되는 실내 공간 전체를 PVC로 싸서 건물의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만들었고. 핏빛 자주색의 색채는 외부에서

비추는 햇빛에 의해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자연과 환경에 맞는 장소 특정적 작업임을 드러내었다.

이 대규모 PVC설치는 35미터 높이에 13.500㎡의 영역을 덮 은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세 부분으로 이뤄진 둥근 구조는 서로 연 결되어 있고 그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내부로부 터 탐색된다. 메르큐리오와 파파로니(Gianni Mercurio and Demetrio Paparoni)가 언급했듯. 관객은 커다란 자궁으로 들 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카푸어는 그랑팔레의 구조를 통 해 조각, 인간, 그리고 그의 설치를 이루는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 여주었다. 아르누보식 구조로 지어진 전체의 건축공간은 카푸어의 작업에 싸여, 빛이 그 PVC 물질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하나를 이 룬다.⁵⁾

그들의 표정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놀라 게 하는가. 카푸어 예술의 어떤 점 때문에 관객들이 아까운 여정의 일정을 멈추고 그랑팔레의 기나긴 줄을 서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 체 무엇이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이들의 불만과 피로를 단번에 날 려버리는 미적 보상이란 말인가. 답은 '충격적 센세이션'이었다. 선 정적으로 빨간 핏빛 공간 속에. 그 선정적 공허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온몸의 반응이었다. 카푸어의 작업은 그랑 팔레의 내부를 그 대로 드러낸 반투명의 PVC 조형물 자체라기보다 관람자의 몸과 이를 압도하는 공간 사이의 관계가 그 주제였던 셈이다. 작가가 강 조하는 관객과의 전격적인 교감이다.

서울의 카푸어: 실제로 목격하는 미적 감동

파리에서 프레스증을 소지하고서도 가장 들어가기 어려웠던 오 프닝. 그토록 근접하기 힘들었던 카푸어를 2012년. 서울의 리움 미술관에서 접할 때의 감격은 적잖았다. 그 때의 뱀처럼 긴 줄의 기다림을 회고하면서. 문화가 교차될 때 고급 미술에의 접근이 상 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카푸어와 같이 유치하기에 거대 자본이 요구되는 건축적 작업을 전시할 수 있는 국력의 신장 을 실감했다. 깔끔한 공간에 그득한 그의 18점의 작품들이 눈물 나

⁴⁾ 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은 강력하고 어두운 힘의 존재인 동시에 홉스(Thomas Hobbes)의 고전 서적 『리바이어던』(1651)을 따라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정치적 은유와 동의 어이기도 하다

⁵⁾ Gianni Mercurio and Demetrio Paparoni, "The Turning Point of Sculpture", in Clare Chapman(ed.), Dirty Corner, Milano: Skira, 2011, p. vi.

도록 반가운 거였다. 동아시아 최초의 카푸어 개인전은 제법 큰 규모로, 또 내한한 작가의 육성을 곁들여 우리에게 다가왔다.

충격의 건축 설치: 건물 바닥에 뚫은 구멍

리움 전시는 1980년대 초, 작가로서 카푸어의 존재를 알린 초기의 안료 오브제 작업, 조각 내부의 공간에 주목한 공허(void) 시리즈, 근작인 붉은 왁스 연작과 대형 스테인리스 반영 설치 등을 망라했다. 근 30여년 간의 작업에서 그는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아우르며 이 시대에 맞는 정신적이며 시적이고, 또 종교적인 작품을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회화, 조각, 건축을 넘나드는 그의 다양한 작업 중 '건축적 조각'에 집중한다면,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건물의 바닥을 실제로 뚫는 작업이다. 리움 전시에서도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 바닥에 2m 정도의 깊고 거대한 구멍을 뚫은 작업이다. 견고한 미술 관의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전시에서 나온 작업은 규모가 약간 작지만, 그가 1992년 카셀 도큐멘타에 설치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림보로의 하강 Descent into Limbo〉(도 11)과 유사하다. 이설치작업은 2m 이상의 깊이로 파여진 지하 구멍이 신체적 위험과 더불어 관객에게 직접적인 공포를 자아냈다. 그 내부를 모노크롬의 검은색으로 칠해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심연(深淵)처럼 만들었다. 겉으로 보아 검정색 동그라미 평면인 줄 알다가, 그것이 실제구멍이란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이란!





도11) 아니쉬 카푸어, 〈림보로의 추락 Descent into Limbo〉, 1992, 콘크리트와 스투코(concrete and stucco), 600x600x600cm © Anish Kapoor / Lisson Gallery 전시 전경: 카셀 도큐멘타 IX(Kassel Documenta IX) 프로젝트

카푸어가 건축물이나 조형물에 뚫은 구멍은 깊이를 지닌 실제 구멍이지만, 모노톤의 색채가 주는 고도의 밀도가 이를 평면처럼 보이게 하여, 빈 공간이 아닌 '꽉 찬 구멍'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구멍이란 본래 빈 것인데, 작가는 색과 조형의 묘(妙)로 충만한 구멍을 만들어 낸 것이다. 눈앞에서 확인하는 색즉시공·공즉시 색인가.

이렇듯 구멍, 혹은 공허를 지닌 구조물은 작가가 강조하듯, "내부가 외부보다 크다"는 점을 실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움 전시장 한 중간에 오목한 반구 형태의 오브제 세 개가 짙은 푸른색으로 뒤덮인 채 세 개의 벽면에 하나씩 걸려 있던 작품의 제목은 〈무제 Untitled〉(도 12). 생성과 근원을 상징하는 반구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처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을 우리는 바닥에 난 커다란 구멍에서도 대면한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깊은 공간은 관객에게 실제적인 공포를 느끼게 한다.



도12) 아니쉬 카푸어, 〈무제 Untitled〉, 1990, 섬유 유리와 안료(fiberglass and pigment), 리움 미술관에 전시된 모습

우주의 형태는 뒤집혀진 형태라고 말했듯, 카푸어는 바닥에 움푹들어가 있는 공간을 형태 그 자체가 뒤집혀진 구조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내부는 측량할 수 없는 우주처럼, 우리 인식의 범주를 넘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우리가 지닌 이성과 합리가 받치고 있는 확실성의 수준 아래의, 그 저변의 어두운 세계를 구체적인 건축설치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 미지의 세계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의 어두운 영역이요, 인식을 넘어서는 알수 없는 두려움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순수한 단색으로 덮인 압도하는 규모의 설치작은 우리에게 근본 적 공포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칸트의 숭고(sublime) 체험으로 유도한다. 이는 거대한 규모의 압도적 현상 앞에서 그 체험의 정도 를 감당할 수 없는 주체가 스스로를 상실하며 갖는 공포감을 뜻하 는 것이다. 작가 자신이 강조했듯, 숭고의 개념을 구현하는 카푸어 의 작업은 오늘날, 이성과 합리의 주체가 가진 인식의 확실성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회의(懷疑)를 잘 드러낸다.

건물은 몸이다

건물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은 작가가 건물을 몸과 동일시하여 그 신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멍 뿐 아니라, 벽을 변형시 켜 오목. 볼록한 유기체적 특징을 은유한 다양한 작업들이 있다. 예컨대. 벽의 표면을 임산부의 배처럼 도드라지게 만든 〈내가 임 신했을 때 When I am pregnant>(1992)(도 13)라든가, 반 대로 표면상의 연결이 완벽하게 매끄러워 그 섬세한 오목 구조가 생명체처럼 자연스런 작품 〈나의 몸, 너의 몸 My Body Your Body〉(1993), 〈노랑 Yellow〉(1999)을 볼 수 있다. 이 작품들 에는 종종 채도가 높은 모노톤의 색이 넓은 면으로 칠해있어 지고 한 정신적 초월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건축과 몸의 유비를 시각 적으로 실현시킨 그의 건축적 조각은 철학적 개념과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만난 아름다움의 극치를 구현한다. 몸을 닮은 건축이 정신 성마저 부여받은 셈이랄까.



도13) 아니쉬 카푸어, 〈내가 임신했을 때 When I am Pregnant〉, 1992, 섬유 유리와 페인트 (Fibreglass and paint) © Anish Kapoor

여하튼 유연하게 변형된 건축적 조형은 놀랍도록 우리의 몸 을 닮아있다. 피부에 생채기를 내듯 벽을 파서, 그 파인 공간 에 핏빛 빨간색을 칠한 〈성 도마의 치유 The Healing of St Thomas \((1989)(도 14)를 보면서 이 조각가의 기본 전제. 즉 '몸 은 건축'이라는 함축적 사고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그러 나 대담하게 실행돼 있는가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작가 스스로 비유했듯. 50년대 루치오 폰타나의 찢겨진 캔버스(도 15)를 카푸 어는 건축 조각에서 구현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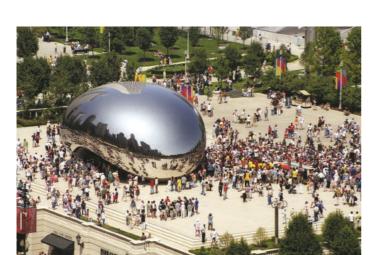
와 안료(Wood, fibreglass and pigment), 35× 버스 위의 수성도료(Waterpaint on canvas) 18×2cm

도14) 아니쉬 카푸어, 〈성 도마의 치유 The 도15)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공간 개 Healing of St Thomas〉, 1989, 나무, 섬유 유리 념, 기대 Concetto spaziale, Attesa〉, 1959, 캔

반영 오브제의 대형 설치: 시각의 교란

좋은 작품은 도시를 명품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명 품도시를 위해선 건축설치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카푸어의 작업 중. 시카고의 〈구름 문 Cloud Gate〉(2004)(도 16)과 뉴욕의 〈 하늘거울 Sky Mirror〉(2006)(도 17) 등이 그런 경우이다. 이 작업들은 오목과 볼록의 구조가 이룬 반영의 스테인레스 스틸 작업 이다. 형태의 굴곡이 가져오는 반영의 교란은 작품 앞에 선 관람자 의 시각체계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

거울의 반영을 왜곡하여 보여주는 그의 대형 스테인레스 스틸 작 업들은 주체의 자기인식에 대한 커다란 시각적 도전이다. 고도의 공 학적 기술과 협업을 이룬 그의 오목한 스틸 거울은 그 앞에 서면 우



도16) 아니쉬 카푸어, 〈구름 문 Cloud Gate〉, 2004,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10×20× 12.8m, 설치 전경: 시카고의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 Chicago)



도17) 아니쉬 카푸어, 〈하늘 거울 Sky Mirror〉, 2006, 뉴욕의 록펠러센터 앞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Rockefeller Center, New York)



도17) 아니쉬 카푸어, 〈하늘 거울〉, 2006, 세부 사진

리 자신을 눈앞에서 잃게 하고, 멀리 떨어지면 급격히 왜곡되며 거 꾸로 되기 십상이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포착 할 수 없는 교란이다. 반영오브제의 두 가지 구조인 볼록과 오목에 서 전자는 대상을 축소하고 후자는 확대시킨다. 그 밀치고 빨아들이 는 시각구조에 주체가 대상(작업)을 어떻게 감지하는가에 대한 현상 학적 탐색이 개입된다. 이 때 오목한 구조로 반영된 부분은 아이러 니컬하게도 그 표면에 환영의 오브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즉,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득 차있는 역설의 구조가 실현돼 있다.

〈현기증 V&VII Vertigo V&VII〉(2012)(도 18)과 〈하늘거울〉 등 오목거울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에서 카푸어가 특히 중요하 게 여긴 것은 "오목거울은 거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비치는 대상 들을 자기 안에 가득 채운다"는 점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코텐스틸 (corten steel)로 제작되어 녹으로 덮인 〈동굴 Cave〉(2012)(도 19)은 공간보다 큰 오브제의 경우, 우리가 그 오브제를 전체로 인 식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내부가 외부보다 크다 는 것을 구조적으로 드러낸 것이니 심오하지 않은가. 더불어, '공 간의 규모를 안과 밖에서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고도의 지적 작업이라 하겠다.





도19) 아니쉬 카푸어〈동굴 Cave〉 2012 코텐스틸(Cor Ten steel) 551x800x805cm

카푸어 작업의 미적 맥락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카푸어는 1973년 영국 런던으 로 이주, 런던의 혼지 미술대학(Hornsey College of Art)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이후 계속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혼지 는 영국에서도 가장 급진적 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에 대학의 분위기가 그의 독창력의 기반이 되었으리라 예상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카푸어가 태생적으로 인도인이고. 모계 쪽으로 유태인이란 사실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영 국만의 단일한 문화가 아닌, 인도와 유태계라는 두 가지 문화의 층 을 갖기 때문이다. 한 작가의 인종, 태생적 배경은 '편견' 아닌 '맥 락'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카푸어가 인도와 유태계 문화를 덧붙 여 체득한 영국문화는 서구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혹은 그 비판의 양자택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있게 한다. 그의 다층적 문화 배경은 이분법을 아우르며 정신적 명상으로 끌어올려 서구인이 갖는 체계 와 이성의 사고를 넘어설 근거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의 독창적 예 술세계는 존재와 부재의 내적 관계, 비움을 통한 채움, 육체를 통 한 정신성의 고양 등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의 역설적 관계, 그 교통과 융합이 갖는 유동성을 시각화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카푸어의 미술작업의 근본은 한편으로 인도 전통과 다른 한편으 론 서구의 철학 및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양자에 기반 하여 인간의 근본 구조와 속성을 이해하려 한다. 빛과 어두움의 대 립 사이의 영역에 대한 관심, 또 지각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색채와 매체, 그리고 규모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인상과 지각 의 혼란을 선사한다. 관람자에게 요구한 완전한 몰입은 종종 불안 함과 교란의 체험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도전은 언제 나 몸의 구조와 감각에 직결돼 있다. 건축을 변형시키는 그의 대규 모 작업들은 종종 신체를 은유하기 때문이다. 끈적끈적한 촉각적 재료와 선혈의 붉은 색채가 유기체를 그대로 닮아 있다. 그의 작업 이 추상적 개념과 형이상학을 추구한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나가며

카푸어의 작업은 한마디로, 표면과 깊이의 유희이다. 관객을 깊 숙이 끌어 당겼다가 여지없이 튕겨낸다. 완전한 흡입력의 안료작업 과 매몰차게 내치는 반영작업. 영원한 심연의 지하세계로 빨아들이 는 어두운 구멍과 천상의 영혼처럼 순수한 색채의 초월성 등 양 극 단을 아우를 정도로 그 작업의 폭이 넓다. 지극히 신체적이면서도 가장 초월적이기도 한 카푸어의 작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본 적 감정을 이끌어 낸다. 그것이 때로 공포스럽고, 위협적이고, 끔 찍하다 해도 인간존재의 보편성을 건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카푸어 작업에선 끊임없이 재발되는 표현방식이 돋보인다. 한계 를 모를 정도로 그 영역이 다양한데 한편으로는 기념비적이고 또 다른 편으론 친근한 영역을. 또한 한쪽엔 완벽성을. 다른 쪽엔 카 오스를 갖추고 있다. 재료를 보아도 가장 자연스런 것에서 지극히 인공적 물질까지 활용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추구하는 추 상적 은유를 표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그의 은유는 종 종 인간의 유기체적 구조를 나타내거나 생명체의 생성원리 등 작가 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 상태를 다룬다. 지극히 물질적이면서도 극도의 형이상학을 드러내니. 이것이 카푸어 작업 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圖

연재.

글. **이관석**_ Lee, Kwan-seok

경희대학교 교수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건축 전공자라면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에 대해 조금씩은 안다. 현대건축에 끼친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건축 철학과 작품은 어느 건축사 못지않게 자세히 소개됐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르코르뷔지에를 주목하는 것은 사회·예술·문화 전반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거침없이 더듬은 그의 예민한 촉수가 여전히 수많은 향방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듬어 따라가 각각의 종착점에 도착했다고 안도할라치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는 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생명력 앞에서 그의 사망 후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해진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에 이은 이번 르코르뷔지에 연재에서는 그동안 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에서 약간 다른 면이나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면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 간 학술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살폈던 내용들인데, 이번 기회에 건축 일선에서 실무 를 수행하며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를 접하기 쉽지 않은 건축사분 들에게 르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일면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르코르뷔지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다소 엉뚱하지만 직접 건축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그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을지, 불황 때문에 일거리라곤 없다시피 했던 10여 년의 무시무시한 공백기를 그가 어떻게 견디며 내일을 기약했는지, 스치는 우연한 만남을 필연으로 바꾼 그의 인연이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건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프랑스 건축사 학위를, 파리1대학교에서 예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빛을 따라 건축적 산책을 떠나다)(2004)와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2011) 등의 저서를 비롯해 역서 〈건축을 향하여)(2002), 〈프레시지옹)(2004), 〈오늘날의 장식예술)(2007) 등 십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연재 목차

- 1. 르코르뷔지에와 기계
-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 3.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下)
- 4. 르코르뷔지에의 '지속연구'
- 5. 르코르뷔지에의 인연
- 6.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정의

2. 르코르뷔지에와 건축교육(上)

〈시간의 연속성 상에 위치한 건축의 올바른 자세와 건축의 기초에 관하여〉

5년제 건축학교육인증제가 시행되는 등 좋은 건축사의 자질을 갖추게 하려는 건축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희 망이 오늘의 교육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축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이 건축 발전의 기본조 건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건 축역사는 제도권 건축교육이 때때로 시대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 음을 보여준다. 공적 교육체제와 현실의 괴리라는 당면과제는 다 른 한편으로 혁신적 교육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글은 제도권 교육체제에 강하게 반발했던 건축사로 알려진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교육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아 카데미즘으로 대변되는 당시 건축교육체제와 날선 공방을 벌이면 서도 정작 자신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건축학도들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서는. 즉 자신이 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사양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이 가르치기 위 해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더욱이 적절한 건축교육도 받아보지 못 한 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야 했 으며, 또한 개인적인 공부에 너무 바빴고 자주 해외로 여행을 다 녀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교육계를 장악한 채 건축 주류 로 행세하던 아카데미즘 인사들과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마찰도 그 로 하여금 교육에 몸담는 것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르코르뷔지에가 기존 교육체제를 공격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외면만 한 것은 아니 다.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숱한 강연과 저서를 통 해 건축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유념해서 공부해야 할 것으로 권유한 것들에는 그가 생각하는. 자 신과 대척점에 있던 제도권 건축교육체제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렇게 강연과 저서를 통해 그가 젊은이들에게 권고한. 새로운 건축에 합당한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교육 내용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르코르뷔지에 가 유념하는 건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오늘날 우리의 건축교 육에 시사하는 바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그가 일생을 통해 저술한 50여 권의 책이다. 이 중 건축교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길게 언급한 초기 사례는 1929년 그 가 아르헨티나 예술동호회의 초청으로 남미를 방문했을 때 열 차 례 행한 강연 내용을 담은 『프레시지옹(Précisions sur un état présent de l'architecture et de l'urbanisme)』에 나온다. 그중 여덟 번째 강연 인 「'세계도시'와 즉흥적 고찰」 장에서 '만약 건축을 가르쳐야 했다 면 무엇을 가르쳤을까?' 라는 대중의 질문이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진 자문자답 형식이 건축교육과 직결된 내용이다. 그가 다른 강 연에서도 초반에 여러 차례 그 자리에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환기시킨 데서 『프레시지옹』 내용 전반이 건축학도들을 염 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서들 중 건축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또 하나의 책은 1943년에 발행된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Entretien avec les étudiants des écoles d'architecture, 이하 『대화』)』이다. 르코르뷔 지에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에콜데보자르(École des Beaux-Arts)에서 건축을 배우던 학생들이 그에게 스튜디오를 열어주기 를. 그것이 안 되면 조언이라도 해주길 요청했을 때 직접교육을 대신해 저술했던 책이다. 이 두 책의 내용은 건축학교에서 가르쳐 야 할 것에 대한 그의 바람을 집약한 것으로. 건축교육에 대한 그 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르코르뷔지에의 생각은 그가 저술한 책들 곳곳에 담겨 있다. 다분히 계몽적이었던 르코르 뷔지에의 저서들이 건축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자신이 판단한 사안 들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제시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다. 그는 자신의 건축 작품을 담고 있는 여덟 권의 『르코르뷔지에

작품전집(Le Corbusier Oeuvre complète)』을 "근대적인 건축교육의 선언서"로 여겼다. 자신의 건축 작품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담은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건축학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생각을 담은 "대화』에 나오는 폭넓은 개진을 본 글을 전개해나가는 중심축으로 볼 때 이보다 13년 전에 발간된 "프레시지옹」에는 상당 부분 유사한 견해가 담겨 있다.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일관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인 "프레시지옹」에서 나오지 않는 언급들은 그가 발간한 여러 저서들을 참조하며 내재된 의미를 추적한다.

르코르뷔지에가 생각한 건축학습 내용

르코르뷔지에는 "대화」에서 여러 각도로 건축을 숙고하고 공부 할 것을 충고했다.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한 쪽의 짧은 내 용을 지닌 1장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책 내용이 세대차를 허물고 진솔한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2장 「무질서」는 방 향을 잃은 당시의 건축이 죽었음을, 그러나 교육이 마땅히 끝내야 할 무질서를 바로 잡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3장 「주거의 건설」은 살아가는 환경에 주의조차 기울인 적이 없는 당시 교육을 질타하며 단순히 건축 유형의 문제가 아닌 인간 복원의 관 점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열여섯 절로 나뉜 4장 「건축」은 하 늘과 태양 및 대지와 건축의 관계, 스케일, 내·외부 공간에서의 움직임, 자신의 소비에트 회관 계획안에 적용됐던 과감한 창안, 기술과 재료. 조화. 구조. 건축사의 영감의 원천인 의도의 중요성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통과 토착성 문제가 세 절에 걸쳐 다뤄졌 다. 5장 「워크샵에 대해서」는 자기의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비난을 거듭하는 이들에 대한 지탄과 바람직한 가르침의 형태 등 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언급은 전술한 대로 13년 전에 자신이 건축교육 자였다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강연한 『프레시지옹』에 이미 포괄돼 있다. 이 두 책에서 표출된 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이 표는 르코르뷔지에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를 네 가지로 대별한다. 첫째, 당시의 그릇된 건축 현상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건축이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

여야 하는지, 무장해야 할 시대정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시간의 연속성 상에 위치한 건축이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다.

교육	에서의 주안점	상세 내용				
건축과 시간	현상 직시와 반성	시대정신이 결여된 과거의 무분별한 수용과 잘못된 교육, 유행 질타				
	과거로부터의 교훈	전통, 토착성, 민속문화, 고전의 중요성 강조				
	대지	하늘, 기후, 태양, 부지 등의 자연조건에서 나오는 건				
건축의 기본	내 · 외부 공간과 동선	근대적 공간성과 동선 중시				
	주거	건축의 기본으로서의 주거 연구				
거초기 기스	구조와 재료	(정)역학을 포함한 구조 및 재료				
건축과 기술	건축 환경	소음, 단열, 팽창, 냉난방 등				
거초기 저시	정신적 측면	의도, 조화와 비례				
건축과 정신	생각과 표현	스케일, 색채와 글쓰기/스케치				

〈표1〉 건축교육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주안점

둘째, 제대로 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출발점이 어떠해야 하는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건축 공부와 작업의 기본을 거론한다.

셋째, 이전 건축과 달라야 하는 새로운 건축이 참조해야 할 기술에 대한 건축사의 열린 자세와 학습을 권유한다. 앞의 두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여타 순수예술가와는 다르게 건축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소양을 말하고 있다.

넷째, 건축을 정신의 창조물로 여기는 르코르뷔지에가 수준 높은 건축물에 내재돼야 한다고 진술한 덕목들을 건축과 정신의 항목에 모았다. 의도, 조화, 비례, 스케일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뛰어난 건축물에 엄존하는 덕목들을 토로한 것이다. 글쓰기와 스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분량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전반부 두 장인 「건축과 시간」 및 「건축의 기본」만 싣고 후반부 두 장은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한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학습 내용에 담긴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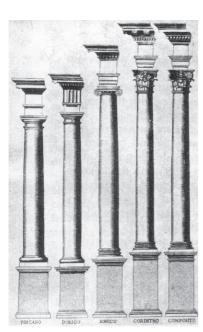
1. 건축과 시간

(1) 현상 직시와 반성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옹』에서 자신이 교수였다면 학생들에

게 뭘 가르쳤을까? 라고 자문한 뒤 당시 건축의 혼돈 상황에서부터 자답을 시작했다. "대화」의 사실상 첫 장인 「무질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 진단은 아르헨티나라는 신대륙 국가가 시대정신에 따른 활기나 독창성을 띠지 못하고 유럽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미국처럼 비뇰라(Giacomo da Vignola)의 주범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으며, 낡은 규칙에 깊이 파묻힌 채 안주하여 건축이 죽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위의 두 책에서 르코르뷔지에는 이러한 과거 회귀적인 건축을 경



건축의 다섯 오더 규범(Regola delle cinque ordini d'architettura), 비뇰라, 1562

계할 때 바로크 시대 건 축사 비뇰라의 주범을 자주 거론했다. 정형화 되고 양식화된 과거 건 축의 규범을 가르치느라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을 소홀히 대 한다는 것이다. 신과 같 은 존재로 군림한 비뇰 라의 '건축의 다섯 오더 규범(Regola delle cinque ordini d'architettura, 1562 년)'으로 대변되는 주범 과 장식을 금과옥조로 여긴 당시 교육 세태에 대해 주범이라는 병이자 해악을 금지하는 데에서 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기지의 사실대로 당시 건축에 대한 르코르뷔지에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건축에 걸맞지 않은 기존 주류 세력들의 건축관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됐다. 「무질서」 장의 첫 문장은 건축이 전례 없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며, 곧이어 기계화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력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갈파했다. 프랑스 교육이 창조적인노력이나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에 매진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함도지적했다. 당시 주류들이 획책한 비정상적인 판단들의 예로 1927년 제네바의 국제연맹본부 현상설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소란을들었다. 이것은 1928년에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의 3차 중보판을 찍을 때 추가됐던 서문 「고열상태」에서 과거로 회귀한 아카데미즘의 농간에 의해 공동 1위를 했던 자신의 작품이

결국 배제된 상황에 통분했던 사건을 되새긴 것이다.

바른 해결책은 명료하게 진술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그는 교육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시급한 과제로 그릇된 현상에의 직시와 반성을 우선했다.

(2) 과거로부터의 교훈

그렇다고 해서 르코르뷔지에가 과거를 모두, 무조건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앞서 연재된 르코르뷔지에의 기계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글(8월호)에서 이미 확인했다. 고전과 전통에 대한 그의 호의와 조예가 상당했음도 보았다. 여기서는 그가 후학들을 위한 조언에서 적잖은 분량을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할애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거론한 내용을 살펴본다.

르코르뷔지에는 『프레시지옹』에서 주범에 의한 상상할 수 없는 실패를 멈추게 하는 데서, '건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며 교육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자신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위대한 감동을, 파르네세 궁전의 장려함을, 미켈란젤로와 알베르티가 개입한 성 베드로 성당의 후진(apse)과 파사드 사이에 열린정신적인 심연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1911년에 떠난동방여행 중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받았던 감명과 교훈은 재론이필요 없는 사실이다.



르코르뷔지에의 아크로폴리스 스케치, 1911

시대정신에 합당한 건축을 주창하며 쓴 『건축을 향하여』에도 사일로나 철교, 자동차와 대양횡단증기선, 비행기 같은 기술의 산물뿐 아니라 힌두교 사원, 성소피아 사원, 테베의 사원, 암만 궁전,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물들, 파리 개선문, 카피톨 언덕의 주피터 신전, 베르사유 궁전의 프티 트리아농 등 과거 건축에 내재된 교훈

이 속출한다. 별도의 「로마의 교훈」장에서는 콜로세움, 콘스탄틴 개선문, 판테온, 코스메댕의 성모 마리아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후진 등 역사적 유적들도 설명된다. 르코르뷔지에가 지적한 그릇됨은 미켈란젤로 이후 깊은 잠에 빠져 발전이 없었다고 본 르네상스 시대 로마 이후의 형편없는 취향에 집중돼 있었다. 로마의 교훈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저항하고 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과거야 말로 나의 스승이며 앞으로도 계속 인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르코르뷔지에가 고백한 『대화』에도 전통의 중요성과 특히 토착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기술돼 있다. 그는 전통으로부터 피어난 꽃인 토착적인 것에 대한 공부가 당시 건축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통한 해법을 금방 주지는 못하겠지만, 토착성 연구가 시간의 혹독한 시험을 견뎌낸 방법들 속에서보다 심오하고 자연적인 인간의 요구에 대해 알게 해줌을 간파하고 학습을 독려했다. 과거의 무조건적 답습은 오만과 나태일 뿐이었다.

과거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하자는 르코르뷔지에의 자세 는 「모든 아카데미즘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을 단 아르헨티 나에서의 첫 번째 강연에서 먼저 표명됐다. 그는 여기서 아카데 미즘의 정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원인을 검증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 질문에 '나' 를 개입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내린 후, 사람들이(아카데미즘에 저 항하는) 자신을 혁명가로 여기지만 자신은 과거라는 한 명의 스승 을 모신다고 고백했다. 또한 유일한 교육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라고까지 단언했다. 과거에서 역사와 사물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교 훈을 발견했으며. 모든 사건과 모든 대상이 과거의 무엇인가와 관 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것이 자신이 학교에서 강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제의받은 교수직을 사양한 이유라고도 했다. 격식과 관 습에 얽매인 학교가 아닌, 박물관 답사나 여행, 민속 연구 등에서 농부들이나 천재들이 만든 순수한 작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 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봤 을 만큼 과거에 대한 공부를 소중히 여겼다.

르코르뷔지에가 학생들에게 토착성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통제가 어려운 어지러운 시기에 이 혼돈을 잠재워줄 방법과 뚜렷한 척도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창조적인 목표를 설정해주고 감성을 키워주며 대지 위에 우리의 창조적인 본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토착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토착적인 것들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을 로마가 아닌 프랑스 시골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

의 활기찬 모습을 흠뻑 받아들이고 여기에 근대 기술이 가져다 준 방법과 도구를 갖추게 된다면 새로운 토착성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봤다. 1911년에 떠난 동방여행 중에 각 지방의 민속 도자기들이 지닌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던 르코르뷔지에는 오로지 차별화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도안된 공장생산 도자기의 변덕을 지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전통을 깡그리 부정하는 당시의 괴벽을 애통해했다. 창의력을 그릇 이해했다는 것이다.

가장 혁신적인 것이 계속 전진하며 미래로 이끄는 믿을 만한 지침으로 전통을 이해한 르코르뷔지에는 당시 건축과 교육을 장악한 '비뇰라화된 육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뇰라를 배우는 이들에게 진정한 건축의 이미지는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충고했다. 과거의 무분별한 모방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계승해야 할 정신적 가치를 든든한 기반으로 하면서 시대기술을 반영해 발전된 건축을 하자는 것이다.

2. 건축의 기본

(1) 대지에서 출발하는 건축

당시는 건축이 대지조건을 고찰하며 배태된 개념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이라는 오늘날의 상식이 낯선 때였다. 형식화된 대규 모 건물이 아니면 건축에 끼지도 못했던 그때는 좌우대칭을 기본 으로 한 위엄과 격식 추구가 건축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아카데미 즘이 횡행하던 때로서 다수의 건축사는 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르코르뷔지에는 외부에서 보면 건축이 단순히 대지에 부가되는 것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대지와 하나로 융합돼야 한다고여겼고, 1911년의 동방여행을 통해 대지의 중요성을 깨달아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지가 우리의 눈에 의해 감각에, 지성에, 그리고 감성에 주어지는 자양분임을, 대지가 건축의 토대임을 강조했다. 건축은 그것이 서있는 자연 상태의 대지와 관계를 맺고있음을, 나아가 대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르코르뷔지에는 대지를 중시한 사례 중 하나인 피르미니 성당(L'Église de St. Pierre de Firminy Vert, 1961~2006)을 설계하며 당초 대지로지정됐던 마일광장(Place du Mail) 대신 현재의 건립 장소를 직접선정한 후 지반 등의 문제로 공사 중단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치를고수했다. 계곡의 낮은 곳이라는 대지의 미덕으로 인해 쌍곡면의 벽이 발상됐기 때문에 같은 설계를 다른 곳에 건립하라는 요구를

그는 수용할 수 없었다. 건축은 대지에서 비롯된다는 신념 때문에 역시 대지의 특성에서 발상된 롱샹 순례자교회와 라투레트 수도원에 이어 세 번째의 교회 유형으로 제시했던 이 성당의 완공을 그는 볼 수 없었다.



피르미니 생피에르 성당, 르코르뷔지에, 피르미니 베르, 196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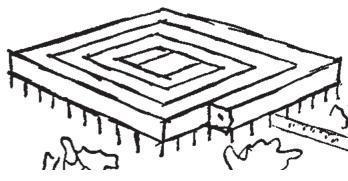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는 학생들에게 대지를 얘기하며 지형적 조건뿐 아니라 가장 지배적이며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하는, 기후를 주관하는 하늘을 거론했다. 덥거나 온화하거나 추운 기후와 또 다른 지역적 조건들이 삶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건축이호응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1942년 제시했던 알제 시와 주변지역을 위한 마스터플랜에서 건축의 기초조건인 자연경관, 지형및 기후 조건이 실제 프로그램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대지를 구획하는 법칙을 결정할 때 이 대지의 법칙으로 인해 건축은 자의적인 독단에 빠지지 않고 원칙과 형태. 그리고 통일된 전



알제시 도시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30

체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르코르뷔지에가 자신의 건축 개념을 고수하면서도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1931년의 파리현대미술관 계획안에서 시작해, 1965년에 계획을 시작됐으나 급작스런 사망으로 중단된 20세기 박물관 계획안까지, 르코르뷔지에가 오랜 기간 연구해온 무한성장박물관(Musée à Croissance Illimitée) 개념이 실현된 세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양호한 기후로 무한성장박물관의 원개념에 가장 충실할 수 있었던 도쿄(국립서양미술관, 1957~59)에서와달리 고온의 기온(아메다바드 미술관, 1952~56)이나 기습적 호우(찬디가르 미술관, 1964~68)에 대응해야 할 때는 구조와 채광방식 및 동선에서, 또한 중심공간과 전시공간의 공간성에서 그는 능숙한 변주를 구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재의 세 번째 주제로 상세히 거론할 것이다.



무한성장박물관 개념도, 르코르뷔지에, 1931

인간에게 땅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인간은 모친의 외모뿐 아니라 유전자까지 전수받는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지는 특징, 즉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인 유전자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처럼 건축도 대지에서 추출된 특성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대지의 올바른 해석이 건축의 출발점이라는 르코르뷔지에의 주장은 오늘날 당연하게까지 여겨지지만, 당시 건축 주류의 인식은 그렇지 못했다.

(2) 내 외부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

르코르뷔지에가 건축교육에서 내·외부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의 건축철학과 작품에 나타나는 이 항목의 높은 위상으로 볼 때 당연하다 하겠다. 그는 건축은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므로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눈높이에서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축의 내·외부에서 움직임과 관련된 법칙이

잘 추구됐는지 또는 무시됐는지에 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을 정도다. 건축적 경험과 감흥의 유무로 건축의 생사를 판단한 것이다. 『대화』에서도 그가 건축을 내부적인 순환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을 기능적인 의미보다 정서적인 이유가더 크다고 말한 것에서 그가 특히 내부 공간성을 중시했음을 알 수있다.

르코르뷔지에는 건축 작품의 다양성을 교향곡에 비유하면서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 걸음에 맞춰 이해되는 건축, 벽면에 머물기도, 그 너머를 투시도적으로 바라보기도, 뭔가를 예감하기도, 놀라기도, 원거리의 조망을 바라보기도 하는 내부공간에서의 질적성격이 작품의 생물학적 원칙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좋은 건축은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살아있는 건축이라는 그의 충고는 반두스뷔르흐(Theo van Doesburg)가 전(全)방향으로,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수평적이면서 대각선적으로, 르코르뷔지에가 상승 또는하강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공간을 확장시키려 했던 이유를 알려준다. 과거 건축의 일방향적 · 단절적 · 폐쇄적 공간을 떠나 다방향적 · 연속적 ·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을 지향해야 함을 조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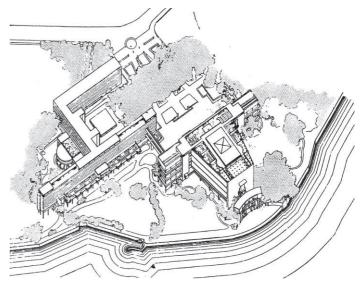
공간과 시간이 합체되는 동선은 르코르뷔지에가 건축과 도시계획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키워드였다. 그가 건축적 즐거움을 일으키는 수백 개의 연속적 지각이라고 설명한 '건축적 산책(la promenade architecturale)' 개념은, 중국정원에서 사려 깊게 고안된 전경이 마치 사진첩처럼 점차적으로 펼쳐지듯이 연속되도록 의도되는 산보처럼, 근대건축의 공간성을 차례로 전개해나가는 시나리오와 결부되어 그가 생각한 건축의 궁극적 목적인 건축적 감동으로 연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르코르뷔지에를 포함한 여러 주요 근대 건축사들이 새로운 공간성과 동선을 선보였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당시 교육에서 공간과 동선의 중요성은 철저히 경시됐다.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을 이해하고 시도하고 교육할 수 있겠지만, 건축의 기본인 공간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관찰자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이동을 통해 정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에 생명을 부여하는 동선에 대한 의식함양은, 1920년대 이후 그의 건축작품 전체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처럼, 르코르뷔지에가 양보할 수 없는 건축교육의 핵심이었다고할 수 있다. 그 자신도 공간을 통한 연속적 움직임의 조직화가 위

대한 건축의 본질이라는, 마치 근대적 가치로만 여겨지는 이 교훈을 역사적 선례들에서 얻었다. 1)

(3) 건축의 기본으로서의 주거 연구

르코르뷔지에는 건축교육에서 주거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놀랍게도 그때까지 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도 교육 과정에 포함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을 향하여』의 2 차 증보판 서문에서 "아무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적 기반을, 인간의 척도를, 필요 형(型)을, 기능형을, 감동형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전부다. 인간이 허식을 떠났음을 알리는 훌륭한 시대인 것이다." 라고 썼다. 『프레시지옹』에서 건축의 기본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사 례를 든 것도 모두 주거건축을 통해서였다. 문과 창문을 어떻게 만들며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형태의 방을 구성할 것인지. 부속 물이 완비된 식당과 부엌, 침실의 기능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얼 마만한 면적을 최소의 크기로 잡을 것인지 등을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주거를 통해 연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과 문의 위치를 정하는 다양한 해법에 따라 각각 다른 건축적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다양한 해결책이 바로 건축의 기초라고 그는 생



국제연맹청사 계획안, 르코르뷔지에, 1926~28

각했다. '어떻게'와 '왜'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을 가르치려고 애쓰면서 '모든 것은 관계'라고 말했다.

르코르뷔지에가 교육에서 주거를 이렇게 중시한 것은 그가 주택 을 궁전과 같이 발상하는 '주택-궁전(Maison-Palais)' 개념에서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1927년 제네바에 세워질 국제연맹 청사 (Palais des Nations)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전에 제출할 계획안을 구 상하면서 공공청사 또는 궁전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palais)를 두 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로의 회귀인지 또는 국제연맹이 이 낡은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인지를 고심했다. 그 결 과 전술된 대로 '아무나'라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주택을 연구하는 것과 인간적 기반을, 인간적 척도를, 필요형을, 기능형 을, 감동형을 되찾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인지를 자문했다. 그리고 바로 이 궁전이 '아무나'라고 할 수 있을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정확히 대응하는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예정됐다고 결론 지었다. 인간적 척도와 기능형을 고려한 그의 계획안이 동점1등 으로 당선됐음에도 결국 진짜 궁전을 계획한 아카데미즘에 밀렸 지만. 이 사건은 그가 구상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에서 소규모 주택 이나 더 큰 공공청사를 구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르코르뷔지에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세 번째 강연내용을 담은 『프레시지옹』의 「모든 것이 건축, 모든 것이 도시계획」 장에서 그 랬던 것처럼, 『대화』에서도 주거와 도시계획은 분리할 수 없는 개 념이라는 '건축-도시계획'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집 안 가구나 조명에서부터 도시와 전원지대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도시계획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끼치며 탁자와 의자. 벽과 방. 계단과 엘리베이터. 거리. 도시 등 모든 대상들 속에 건 축이 내재된 것으로 봤다. 또한 집안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 과 도시 전체의 패턴 등에 한순간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고 건 축과 도시계획이 긴밀한 협조 하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물질적 필요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 을. 하나로 통합된 목표와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축과 도 시계획의 사명이 갖는 위대함을 느끼는 건축인은 주거가 사람들 의 일과 직업, 제도, 그리고 사고를 모두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인의 헌신적인 사명을 필요로 하는 건축의 기본임을 각성시 키고자 한 것이다.

다음 호에서 제시될, 르코르뷔지에가 당시 교육 내용에서 아쉬 워했고 학생들께 공부하기를 권했던 건축과 기술 및 건축과 정신 의 문제에 대한 토로를 종합하면, 당시 건축교육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와 개선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르코르뷔지에가 미래를 위해 그린 건축교육의 그림이 그의 사후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육내용을 예견하고 있음을, 그러면서도 지금의 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圖

참고문헌

- 1. 이관석, 『건축, 르코르뷔지에의 정의』, 동녘, 2011
- BOESIGER, W. ed., Le Corbusier Oeuvre complète 1957~1965, Edition Girsberger, 1965
- CIRIANI, Henri & VIÉ, Claude, l'Espace de l'Architecture Moderne, Rapport final de Recherche, Ministère de l'Urbanisme, du Logement et des Transports, 1989
- 4. CIRIANI, Henri, Faire la lumière, l'Architecture d'Aujourd'hui, Sept. n°282 1992
- CONNER, Patrick, Oriental Architecture in the West, Thames & Hudson, 1979
- 6. Le Corbusier,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봉일범 역, MGH Architecture Books. 2001
- 7. Le Corbusier, 『건축을 향하여』, 이관석 역, 동녘, 2002
- 8.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 · 이관석 공역, 동녘, 2004
- 9, Le Corbusier, 『오늘날의 장식예술』, 이관석 역, 동녘, 2007
- 10. Le Corbusier, 『르 코르뷔지에의 동방여행』, 최정수 역, 안그라픽스, 2010
- 11. LUCAN, Jacques, Le Corbusier, une encyclopédie, Centre Georges Pompidou, 1987

기고,

글. **조인숙**_ Cho, In-souk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삶이 육신의 죽음과 만나는 공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5주년에 부쳐

Beyond the Afterlife, Into the Present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OfferSpaces for Generations Past and Present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및 근교의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 산목록에 등재되어 2014년 등재 5주년을 맞았다. 이에 문화재청 은 사진 및 UCC공모전, '세계유산 조선왕릉 주간' 선포,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하는 포럼 및 효(孝) 와 휴(休), 조선왕릉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문화제를 지난 6월 22~30일 왕릉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열었다.

등재 당시 세계유산적 가치로 특히 부각되었던 것은 조선왕릉이 조선시대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자연관을 보여주고, 당대의 시대 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왕실 제례 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살아있는 전통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 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가운데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1)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기준3)로서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 다른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과; 2)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 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기준4)로서 "500년 이상 지속하 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구성과 건축물과 석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난다는 점"이며; 3)탁월한 보편적 중요 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기준6)에서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 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 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능침-정자각에서

2) 한국의 왕릉과 조선왕릉 -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기원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영(造營)되었던 한국의 왕릉은 단순한 유적이나 탐방지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왕릉 조영(造營)의 건축 및 조경양식은 시대별 한국의 정신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까지 보존되어 전해지는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은 관련 유물 및 풍부한 기록물과 함께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보여주는 보고(寶庫)다. 동서고금을 통

해 왕릉의 모습은 유사점이 있다. 대개 흙을 높이 덮어 언덕처럼 만들었다. 이 점에서 용어도 정착된 듯 하다. 한자어 권에서 통용되는 "릉(陵)"이란 언덕을 의미한다. 구미어 권에서 통용되는 라틴 어 "tumulus"도 주검을 묻은 무덤을 돌과 흙으로 덮는 언덕을 의미한다.

무덤을 일컫는 용어를 보자면 한국의 삼국시대(BCE 1C-CE 10C) 왕과 왕비의 무덤은 릉(陵)이라 하고, 그 외의 무덤은 묘(墓)라 한다. 출토유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짐작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총(塚)이라 하고, 능이나 묘라 할수도 없고 총이라 부를 수도 없는 기타 옛 무덤을 고분(古墳)이라 부른다. 고려시대(10~14세기) 왕릉은 조선시대 능침제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 매우 중요하나 아직은 현장탐방이 쉽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러워서 생략한다.

조선시대(14세기 말~20세기 초) 왕실관련 무덤은 왕실의 위계에 따라 능, 원, 묘로 분류된다: 1) 능(陵)은 추존왕, 추존왕비를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2)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사친(私親: 종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임금의 생가 어버이)의 무덤을 말한다; 3) 묘(墓)는 나머지 왕족, 즉 왕의 정궁의아들, 딸인 대군과 공주, 왕의 서자, 서녀인 군과 옹주, 왕의 첩인후궁, 귀인 등의 무덤을 일컫는다.

즉, 조선왕릉(朝鮮王陵)이란 조선시대(1392~1910) 추존왕을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한다. 조선왕릉 중 현재 개성특급시에 있는 2기, 제릉(齊陵, 태조왕비 신의왕후의 능)과 후릉(厚陵, 정종과 정안왕후 김씨의 능)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서울 및 근교의 왕릉은 40기, 원은 13기이다. 이들 중 단종의 능인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장릉(莊陵) 및 경기도 여주에 소재하는 세종과 소현왕후 심씨의 능인 영릉(英陵) 그리고 효종의 능인 녕릉(寧陵)외의 왕릉은 서울, 즉 조선시대 도읍지 한양에서 약 40km 이내에 있다. 이는 조선시대 축척으로는 100리에 해당하는 거리다. 이러한 도성과 가까운 위치라는 용이한 접근성은 왕위를 이어받은 후 선왕의 묘역을 참배하기 쉽게 하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3) 죽은 자와 산 자의 교감

한국은 예로부터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져왔고, 이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택했던 조선시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이러한 세계관 에서 무덤이란 조상이 머무는 구체적이고도 각별한 공간을 의미한 다. 이에 왕실은 최고 통치자인 왕의 무덤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 어 제사 지냄으로써 백성에 모범을 보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얻고 자 했다. 그러므로 죽은 왕에게 바치는 존경과 기억이 국장의 모든 절차와 왕릉 조영의 실체 및 추후 지속되는 산릉제례 등을 구현 함으로써 왕권 강화 및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되었다.

조선의 국장은 왕이 승하한 후 3년에 걸쳐 총 60단계가 넘는 절차를 밟아 국상의 예를 맺는 것으로 진행된다. 왕이 승하하면 온 궁궐은 임금님을 잃은 슬픔에 잠기지만, 그와 동시에 왕의 장례인 국장(國葬)을 치르기 위해 일사분란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대소 신하들은 우선 임시 기관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 관리들을 임명하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승하한 왕의 옥체를 모신 빈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빈전도감, 국장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문서들을 총괄 제작하는 국장도감, 왕의 능을 조성하는 일을 맡은 기관인 산릉도감의 3도감이다.

조선 왕조의 제례는 위로는 왕가에서부터 일반 사대부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한 의례였다. 무덤에서 치르는 제례는 사람이 그 자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다. 그 가운데도 왕릉의 제례는 왕의 존재가 단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먼 조상 임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임을 재인식시키는 행위였다.

이에 산릉제례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 의식의 하나로, 직접 능에 행차하여 치르는 제례를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태조 건원릉 이하 부왕 및 모후의산릉에 참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배릉(拜陵)이라고 하였다. 배릉 의식은 국가적 의례로서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거행한다는점에서 의례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 산릉제례는 600년을 이어온 왕실 제례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제례로, 지금은 전주 이씨 종약원에서 종묘대제와 아울러 주관하고 있다.

2. 조선왕릉의 조영(造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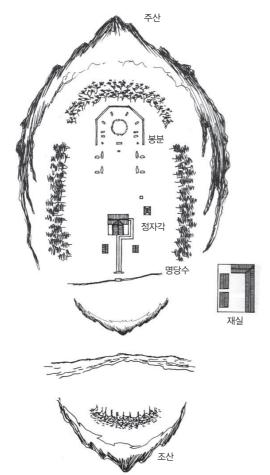
1) 왕릉의 입지와 풍수

조선왕릉의 입지는 왕릉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는 자연조화적인 조영 기법을 따랐다. 즉, 주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거기에 구조물을 맞춰나가는 자연친화적 방식을 고수함

으로써 풍수이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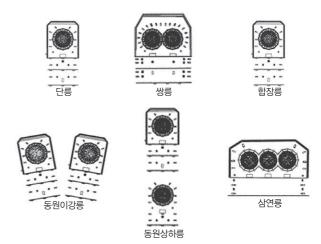
조선왕릉의 지리적 분포와 입지적 특징은 도성(都城)인 한양으로 부터의 40km 이내라는 거리, 도성의 북동쪽과 북서쪽이 다수라는 왕릉의 위치, 그리고 주변 능과의 거리는 약 300m라는 점, 대부분 남향인 좌향, 주변 산세 등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함 등이다.

또한 풍수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능의 위치를 결정함에 바람, 물, 불, 나무 및 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화가 생길 염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뒤로 주산이 펼쳐지는 가운데 산허리에 봉분이 위치해야 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라고 일컬어지는 산맥이 좌우를 감싸며, 봉분 맞은편에 마주하는 산맥이 있어야 훌륭한 자리라고 여겼다. 정해진 입지의 어느 방향에 봉분이 위치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을 바라보도록 조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풍수적인 형국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조선왕릉의 입지와 풍수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이렇듯 왕릉 자체를 자연 환경의 일부로 여기는 풍수사상에 의거하여 자연의 지세와 규모에 따라 조선왕릉에는 다양한 봉분의형태가 남아있다. 이는: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각각 단독으로 조성한단릉; 평평하게 조성한 언덕에 하나의 곡장을 둘러 왕과 왕비의 봉분을 쌍분으로 만든 쌍릉;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합장릉; 하나의 정자각 뒤로 다른 줄기의 언덕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배치한 동원이강릉;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에 위아래로 조영된 동원상하릉; 한 언덕에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의 봉분을 나란히배치하고 곡장을 두른 삼연릉;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동봉삼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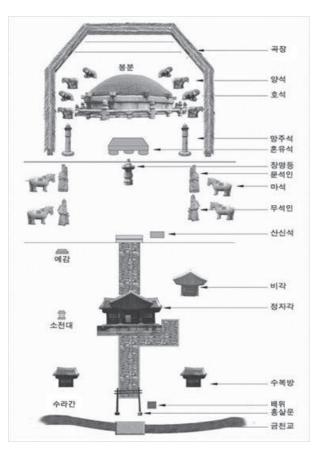
조선왕릉 봉분의 형태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2) 왕릉의 공간구성: 진입공간 - 제향공간 - 능침공간

(1) 진입공간 - 능역의 시작

진입공간(進入空間)은 왕릉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으로, 대개 홍살문으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돌다리 금천교(禁川橋)까지를 일컫는다. 본래 '금천(禁川)'은 명당수로 이곳을 건너면 특별한 영역, 즉선왕의 넋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임을 상징한다.

진입공간에는 제향 준비를 위한 재실이 있다. 이곳에 능참봉 즉, 왕릉 관리자가 거처한다. 왕릉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각 능역마다 있는 홍살문과는 별도로 외홍살문을 만들어 전체가 왕릉의 영역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진입공간은 능침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을 울창하게 식재하고 연못을 조성했다. 이는 풍수적 비보이기도 하고 참배자의 휴식이나 능역의 수리·관리 및 산불 방지 등을 위함이다.



조선왕릉의 공간구성(진입공간-제향공간-능침공간)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명종의 강릉 진입공간 금천교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홍살문-정자각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홍살문(판위)



명종의 강릉 홍살문

(2) 제향공간 –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

제향공간(祭享空間)은 금천교에서 홍살문을 지나 신로를 거쳐 정 자각까지를 말한다.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은 제례의 거 행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공간이다. 홍살문(紅箭門)은 신성한 지역의 시작임을 알리는 문으로, 제향의식이 시작되는 지 점이고, 정자각(丁字閣)은 제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홍살문 옆에 는 박석(薄石)을 깐 판위(版位)가 있어 제주는 능주를 향해 이곳에 서 절을 하고 제례를 시작한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는 박석을 깐 긴 돌길이 있다. 정자각으로 통하는 중앙 축선을 따라 난 넓은 길은 선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길이라 하여 신로(神路)라 하고, 그 옆의 낮고 좁은 길은 제주인 왕이 사용하므로 어로(御路)라 한다. 다른 왕릉과는 달리 대한제국 황제의 능인 홍릉(洪陵)과 유릉(裕 陵)은 신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로가 있는 3로로 조성되어 있다.

정자각 뒤 서쪽에는 축문을 소각시키는 시설물인 예감이 있다. 이는 망료위(望燎位)라고도 한다. 초기 왕릉인 건원릉이나 헌릉에



명종의 강릉 제향공간 정자각



명종의 강릉 신로 및 어로

는 예감과 비슷한 기능의 소전대(燒錢臺)가 함께 있기도 한다. 그리고 정자각 뒤 동북쪽에는 산을 주관하는 신에게 예를 올리는 자리로 장방형의 산신석이 있다. 이는 비록 죽은 몸이지만 인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에 대해 산의 주신(主神)에게 감사하는 예를 표하는 것이다.

(3) 능침공간 - 죽은 자의 공간

능침공간(陵寢空間)은 정자각 뒤부터 봉분 및 곡장(曲墻)을 넘어 산봉우리까지이며, 왕릉의 핵심 공간이다. 봉분의 좌우와 뒷면은 곡장이라는 돌담으로 에워싸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빽빽히 심어 다시 전체 영역을 에워싸고 있다.

봉분은 반구(半球)의 모양이며 떼로 덮여있다. 조선시대 묘제에 의하면 '봉분의 직경은 약 18m, 높이는 약 4m'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후대로 갈수록 줄어들어 평균 직경 약 11m가 된다.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능침



명종-인순왕후의 강릉 능침

능침공간은 봉분을 향해 상계-중계-하계의 3단 구성을 하고 있다.

상계(上階) 또는 초계라고도 하는 상단에는 중심에 흙을 반구형으로 쌓아 올린 봉분이 놓이며, 봉분의 아랫부분에는 12각으로 조성된 병풍석을 둘러 봉분을 장식함과 동시에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바깥을 난간석으로 둘러 다시한 번 에워싼다. 난간석 바깥으로는 두 쌍 혹은 네 쌍의 석호(돌호랑이)와 석양(돌로만든양)들이 봉분을 뒤로 하고 머리는 밖을향해 수호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은 다시 곡장(曲墻)이 이모든 구조물을 에워싸고 있어 풍수지리의 기본인 바람을 막고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이 있고, 그 좌우에는 기둥 모양의 망주석이 서 있다.

중계(中階)의 가운데에는 8각 혹은 4각의 장명등이 있어 상징적으로 불을 밝히고, 그 좌우에 문석인(文石人: 돌로 만든 문인) 1쌍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문석인의 뒤나 옆에 석마(돌로 만든 말)가 한 필씩 놓여 있다. 말의 머리는 중앙을 향해 마주하고 있다.

하계(下階)에는 무석인(武石人: 돌로 만든 무인) 1쌍과 말 1쌍이 놓여 있다. 문석인을 무석인보다 한 단 높게 배치한 석물배치에서 도 조선시대 숭문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영조의 원릉부터는 중계와 하계의 구분이 없어진 점으로 미루어, 조선후기에는 무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왕릉의 석물 - 의물, 유물 등의 미학적 특징과 예술적 가치

조선왕릉에는 다양한 의식용 석물들이 있다. 특히 능침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화강석의 인물상과 동물상 및 봉분의 둘레석, 혼유석 등 무덤주인의 넋을 위한 석물들은 능실을 보호하고 능침을 영원한 사후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라 여겨진다. 이는 왕릉으로서의 장엄함을 강조하고 주변 경관과 조형적으로도 조화를 도모하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40개소 50자리에 1,300여 점의 조각이 끊임없이 조성되었고 대부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왕릉에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상이 혼합된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석물의 구성과 장식을 통해 잘나타나며 $+ \frac{1}{2}$ 나 선의 조화를 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문석인과 무석인 배치에서 문인을 무인보다 높은 위계에 놓은 숭문사상은 성리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상과 인물상은 남성을 상징한다. 무(武)와 문(文), 남(男)과 여(女)를 구분했던 개념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다만 문무 간에는 상하구별이지만 남녀는 유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 중심으로 통치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교적 덕목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왕릉 조영 시 상당한 석물들에 부조 등으로 표현되었다. 장명등이나 연잎 장식 및 영탁과 영저 등의조각이 좋은 예다. 이는 능침공간의 청정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교의 내세관을 염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석양과 석호의 교차 배치는 음양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영탁의 가운데 부분에 태극, 병풍석에 12지신상을 표현한 점, 구름 문양을 반복적으로 새겨 넣은 것들은 도교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과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했던 사상들이 한 가지에만 천작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전의 공간이나 사후세계에 조형으로 표현된 석물들은 조선시대 미학적 특징을 간직할 뿐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높은 유물이라고 판단된다.

3. 연속유산으로서의 조선왕릉에 대한 제언

한국의 조선시대 왕실관련 세계유산 중 창덕궁과 그 후원(1997년 등재), 종묘(1995년 등재) 및 이 글에 서술한 조선왕릉(2009년 등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궁(宮)은 왕과 왕비의 살아 생전의 집이고, 종묘(宗廟)는 하늘로 올라간 영혼의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통해 교감하는 혼(魂)의 집이며, 왕릉은 땅 속에 묻혀 음덕을 베푸는 육신에게 제례를 지내므로 만나는 백(魄)의 집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들이 등재유산이 된 배경에는 각 공간의 조영에 공통적인 개념이 내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둘째, 주 건축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셋째, 음양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다. 즉, 다시 표현하면, 생전의 집이나 사후 거소의 위치를 정할 때 풍수이론에 입각하여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을 찾아서 자연에 의지해서 조영을 했다는 점; 주 건물 또는 봉분이 마당으로 에워싸이고 그것이 또 담으로 둘러싸인다는 점; 그리고 제례를 통해 혼백이 만나고 삶과 죽음이 만난다는 점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진 궁-종묘-왕릉을 각각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연속유산으로 수정할 것 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들을 통해 한국 고유의 유산관리 기준 등이 정립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固



창덕궁 인정전



종묘 정전



왕릉(쌍릉)



창덕궁 진입공간 금천교

사진 : 조인숙

이 글은 필자가 (KOREA August 2014 VOL.10 NO.8)의 Cover story 「Beyond the Afterlife, Into the Present」(4~12쪽)의 집필을 위해 작성한 한글 원고이며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2007)' 및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기고.

글. 신재욱_ Shin, Jae-woog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도시 · 지역개발학박사

건축 그리고 도시의 경계에서

On the Border of Architecture and a City

들어가며

20세기를 되돌아보면 회화, 조각, 건축, 도시계획 등과 같은 영역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세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꾀나 길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술매체의 발달과 함께 이들 영역들이 다시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현상을 빅블러(Big Blur) 현상이라고 하고 있다. 빅블러 현상은 경계를 융합하고 변화를 통해진화와 혁신을 만드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고령화와경기침체, 저성장, 다문화, 개인화, 초연결사회, 환경,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주류(主流)와 비주류(非主流)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계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접경과 같은 물리적 특성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늘 이편과 저편 사이, 경계에 서서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의 선이라 이해할수 있다. 경계에 있다는 것은 비주류적 입장에서 기존의 이념 속에고정되거나 기존에 설정된 가치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하나의 가치 속에 가두어놓고 제한하는 주류(主流)의 이념을 뚫고 일어나는 자발적 생명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주류(非主流)에게 변경(邊境)과 같은 경계는 진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기회다.

건축, 도시계획의 두 영역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의 "도시는 집이다. 집은 도시이다."라는 말과 같이 하나로 인식될 만큼 상호간 가장 가까운 영역으로, 때로는 융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매력 있는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두 영역의 실무를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의 고정된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경계에 서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소감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담론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계의 융합 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첫마을과 행정중심타운의 마스터플랜은 그 수립과정에 참여한 필자에게 건축과 도시 경계에서 진화·혁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평면상 선긋기를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한 후 건축계획을 고려하는 이분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반면 세종시의 두 사례는 기반시설과 건축을 동시에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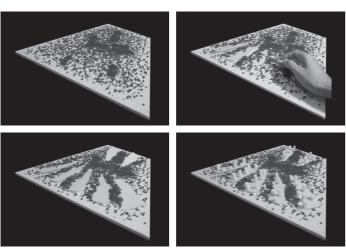
첫마을은 세종시 내에 처음으로 건립되어 입주한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첫마을 사업은 세종시 건설을 선도할 최초사업으로 서 상징성 있고 후속개발의 본보기가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구 상단계부터 공모 및 개발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첫마을 사업시행자에게 원형지로 공급하고 새로운 주거 문화와 도시형태에 대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6년 5월 첫 마을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114만㎡, 35만평)를 시행하였다. ¹⁾ 공모결과 국내외 56개팀이 참가 등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18개 팀(국내 11팀, 국외 7팀)이 제출하였다. 대규모 주거단지(주택 700 호)의 국제설계공모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이전의 단위 건 축물이나 몇 개의 블록단위 정도의 소규모 설계경기가 아닌 하나 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설계공모들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 되고 부지형태나 용적률, 건축유형 등 각종 설계지표들이 미리 결 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시행하였으므로 공모진행은 쉬운 편 이었으나 계획의 폭이 좁아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도시개발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한 이후에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의 효율적 연계가 부족하여 잦은 계획변경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위주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첫마을 국제 설계공모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3 차원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 도시 · 건축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²⁾

즉,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계획단계부터 입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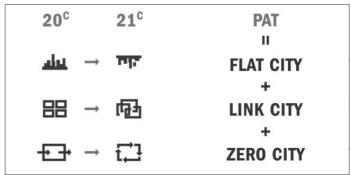
첫마을 마스터플랜 계획개념(자료 : 건원건축. 2006. 자연과 삶이 접혀져 있는 행복도시 '첫마을')



첫마을 마스터플랜(자료: 건원건축. 2006. 자연과 삶이 접혀져 있는 행복도시 '첫마을')

인 조성을 고려하는 혁신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의 융합방식은 도시건축분야의 새로운 전기로, 여타 개발사업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융합방식의 공모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계획이나 일정규모의 단 지계획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중심타운(272만㎡, 84만평)의 공모는 2006년 8월에 시행 되었다. 본 공모전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는 대상지의 토지이용 계획, 보행 및 교통계획, 오픈스페이스 및 스카이라인 지침,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배치계획 및 규모, 형태(massing), 연계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첫마을 설계공모와 같이 행정중심타운의 마 스터플랜도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한 사례다.



행정중심타운 마스터플랜 계획개념(자료: 해안건축.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타운 당선작)



행정중심타운 마스터플랜(자료: 해안건축.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타운 당선작)

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백서. p.341.

³⁾ 전게서. p.356.

두 영역의 경계

도시를 계획하는 계획가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거리의 모퉁이, 공 원, 공공시설물, 보도, 각종지표 등 다양한 도시공간과 시설물의 질 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행위들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쿠바에서 태어난 이 탈리아의 작가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 1923~1985)가 쓴 〈보이지 않는 도시들〉(le cita invisibili)'이라는 책에서도 나타난다. 1972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주인공 마르코 폴로가 여행 중에 들렀 던 도시들을 왕(쿠빌라이 칸)에게 묘사하며 들려주는 내용이다. 전 체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첫째 장과 마지막 장에 각각 열 개의 도시, 나머지 일곱 장에는 각기 다섯 개의 도시를 넣어 전체 쉰다섯 의 도시를 설명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서는 도시의 가치가 위대한 건축물 몇몇에 있는 게 아니라 "거리의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 난간에, 피뢰침 안테나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긁히 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라 고 설명한다. 도시의 인상을 이야기할 때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 실은 도시의 가장 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평면적인 도시계획 도상(圖上)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선긋기 하고 도로로 구획된 블록에 약속된 현란한 색깔을 채우면서 20년 혹은 50년 후 목표연도의 환상적 미래상을 보여주는 청사진 유형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그 청사진에는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나 보이지 않은 공간의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능주의의 도시계획을 하는배경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들을 고민하면서도 현실화하는 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간의 활동이 고려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공간으로부터 소외되는 도시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당구의 도시계획 (자료 : 한형우. 2008. 도시상징프로젝트 연구.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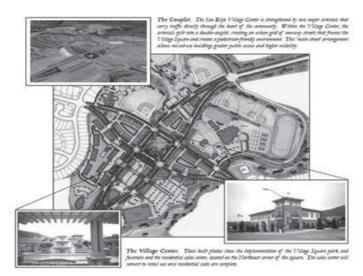
한편 건축사들은 건축의 창조성과 개성을 강조한다. 건축사들은 기존의 도시구조에 건축물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이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여러 가지의 제한과 영향을 행사한다고 한다.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도시의 계획에서 부여한 규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불평한다. 그러면서 건축의 현실을 볼 때 도시환경 안에 존재하게 될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 도시구조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한 예로 건축 전문잡지나 작품전시회에서 소개되는 건축작품의 표현에서 주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도면을 통하여 건축물과도시의 관계를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건물 그 자체의 표현과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것과 적절한 관련을 갖는 건축을 '도시건축'이라고 한다면, '도시 안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많으나 도시건축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경계 허물기 과정(자료: 한형우. 2008. 도시상징프로젝트 연구.p.51.)

이처럼 건축과 도시는 공간을 다루는 방법에 인식 차이가 있다. 인간 활동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건축공간과 도시공간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두 영역을 살펴보면 건축설계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공간이라면, 도시계획은 누구나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특정된 클라이언트의 요구(need)를 충족하면 되지만, 도시의 공간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need)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건축물의 내부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시설로 밀도 높게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하지만, 도시의 공간은 도시민이나 방문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이 더욱 요긴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두 영역의 사명 이라면, 도시와 건축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



San Ellijo Hills Village Center(San Marco, 미국)

- 면적 : 364,212m²
- 중앙의 Village Square를 중심으로 소매, 업무시설, 주민자치센터, 복지 및 교육시
- 학교부지는 중앙의 Village Square와 인접되어 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복합 된 캠퍼스 형태의 학교시설 조성

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상호 공유된 공간철학을 가지고 있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에서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여 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도시에 공적 공간 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제공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다. 도시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란 도 시의 공간을 사용하므로 그 도시에 공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 시의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윤리성(倫理性)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가 건물 내부의 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부 의 공적 공간과 외부의 도시공간까지 연계되어 수행될 때 그러한 공적 공간은 일반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은 친근감 을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공적 공간에는 사 람들이 모이고 활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공적 공간을 제공하 는 건물 또한 활발하게 이용됨으로써 건물주에게도 실제적인 이익 을 가져다줄 것이다. 도시에 세워지는 바람직한 건축물은 우선 그 건축물 자체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위치하는 도시의 맥락(context)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건축이어야 할 것이다.

맺은말

앞에서와 같이 도시,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경계의 의미를 살펴 본 것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필자 입장에서 고성장시대에서 저성 장시대로, 인구 정체시대에서 생산인구 감소시대로, 도시화에서 저도시화(低都市化)로의 변화는 다른 분야보다 도시 · 건축 분야에 서 위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 예로 도시정부는 상주인구 정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 입 등 유동인구 증가방안을 고려하면서 도시 투어리즘(tourism) 이라는 또 하나의 경계를 생성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이 안정화되 면서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경계가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P2P(person to person)에서 M2M(Machine to Machine)으로 진화함에 따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다양한 영역 간 경계가 생성될 것이다.

한편으로 과학과 철학이 결합하고. 기술과 인문이 하나가 되고 있고 우리 사고의 패턴과 소통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지속 적으로 경계를 긋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와중에 경계가 무너지든 사라지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 든,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을 포착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외부의 예상치도 못했던 경쟁자에 의해 아예 사라지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圖

기고.

글. **한영식**_ Han, Young-sik

큐브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도시 경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구조물의 규제와 활용에 관한 소고(£)

Consideration On Regulations and Use of Container Structures that Make the City Ugly 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나은 건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그 나라의 산업규격에 의한 정의가 있고, 또 구조 강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구로서 신속한 하역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화물수송용기이며,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연안의 몰수물자 수송용으로 해상 컨테이너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Dry Freight ISO Container

1. 수출용 컨테이너에 대한 고찰

수출용 컨테이너(이하 본 글에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말한다)는 일정한 크기와 용적을 가지고 있는 용기로,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흔히들 임시적인 건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적 사용으로 도시경관의 흉물이되어 버렸고, 나아가 하나의 도시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글에서는 도시문제화 되고 있는 컨테이너 구축물을 건축행위로 받아들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건축의 일부로서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적인 경제 발달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품 수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문제화 되고 있는 무분별한 컨테이너의 사용은 사용자뿐만 아 니라 도시미관에도 적지 않은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렴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문제화 될 수 있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1972)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화물 보관과 반복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의 재적재 없이 하나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 간 환적(Transshipment) 및 물품의 적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진 것으로 다음을 충족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군용 컨테이너

- 영구적인 구조의 것으로 반복 사용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고정되어 있고 또한 신속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모 서리 끼움쇠(Corner Fitting)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는 미군부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70년대에는 운송용으로 쓰였으나 1980년대에는 경제성 장에 따른 아파트 신축 붐을 타고 현장사무실로 쓰이기 시작하였 다. 1990년대 초에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내수용 컨테이너로 바뀌 면서 현장사무실, 창고, 경비실, 숙소, 화장실, 매점 등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해수욕장의 방갈로용으 로 지붕이 올라가면서 주택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시공이 빠르고 이동 설치가 가능 한 이점을 살린 컨테이너하우스나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이 개 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타 공법에 비해 친환경 적이며, 시공성이나 경제성에 때문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사용한 현장 사무실, 창고, 경비실, 숙소, 화장실

초기에 제작된 목재 컨테이너는 수명이 6~7년이었으나 1970년 대 것은 10년이 넘었고, 스틸 컨테이너의 수명은 12~14년으로 잡 고 있으며, 현재에는 20년 이상의 내구력을 지닌 컨테이너가 개 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고내후성 강재의 소요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강 대신 특수강이 사



목재 컨테이너

용되고 있다. 내후성 강재의 특 성은 특수합금에 의해 부식으 로부터 철판을 보호하는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녹 발생을 방 지한다는 것이다. 만일 산화피 막이 손상을 입으면 자체 피막 이 재생되어 지속적으로 부식 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철판의 수명은 연장된다.

컨테이너란 일반화물, 냉장화물, 특수화물을 적재하고 해상, 육 상, 항공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송 용기다. 이러한 컨 테이너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활용하는 것에는 크게 컨테이너의 장점을 살려 개조한 컨테이너하우스라는 개념과 컨테이너를 하나 의 유닛으로 보고 다른 구조물 없이 컨테이너만을 조립하여 구축 한 건축물의 개념, 컨테이너를 건물 내부에 도입한 건축물 개념이 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컨테이너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방법을 응용 하여 주거용으로 보완한 것인데, 스틸보강조립을 사용하므로 강 하고 튼튼하며 건축비가 저렴하다. 또한 컨테이너를 다른 구조 물 없이 조립하여 구축한 경우는 기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규 격화된 유닛을 활용한 것으로, 온도, 습도에 강하고 다른 건축물 의 시공기간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 축 구조물 내부에 컨테이너를 도입하여 공간을 활용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공간 모듈에 따라 규격화 되어 있는 컨 테이너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구획이 가능하 며, 가변성이 높고 조립 및 철거가 용이하며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건축물, 건물 내부에 도입한 컨테이너

건축 요소로서의 컨테이너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방수, 방습, 내수성이 뛰어나며 견고하고 반영구적이다.
- 일종의 모듈러 시스템으로, 컨테이너의 활용에 따라 다양한 공 간구성(조형물, 상업용, 주거용 등)이 가능하다.
-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 이동식으로 어떤 지리 조건에서도 이동 및 설치가 가능하다.
- 컨테이너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규격 화되어 있어 노후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교체가 편리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 컨테이너의 바닥면이 지면에 닿을 경우 부식이 쉽게 되며 지면
 의 기초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바닥면의 뒤틀림으로 균형을 잃게 된다.
- 컨테이너 자체를 활용한 건축일 경우 단열, 통풍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 컨테이너를 이동 · 설치해야 하므로 운반과 설치에 제약이 있다.
- 철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

컨테이너 건축의 특성은 재료로서의 컨테이너 특성과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에 언급한 내용은 좀 더 건축적인 기준으로 장단점을 정리해본 것이다.

(1) 장점

① 강도와 내구성



컨테이너는 여러 측면에서 이 상적인 건축재료다. 무거운 화 물 적재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또한 해상 혹은 육로의 거친 환경에 견디도록 고안되었다.

② 모듈러시스템



모든 컨테이너는 동일한 기준치수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구조체로 결합할수 있는 모듈을 제공한다. 이 것은 디자인과 계획 그리고 이동을 단순화시킨다. 컨테이너는 운송 중에 이동이 쉽고 이미

결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구축(structural construction)은 단순히 상호 결속함으로써 축조된다. 모듈러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적 축조는 컨테이너를 쌓는 것만큼이나 용이하다. 내부가 빈 상태로 12대의 높이로 쌓일 수 있다.

③ 이동성



컨테이너는 이미 모듈치수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트 럭, 열차에 의해 쉽게 이동된 다. 따라서 공장에서 제작한 후 설치하는 모듈러 건축을 가능하 게 한다.

④ 재료 구입의 용이성



중고 컨테이너는 세계적으로 구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국가 혹은 회사는 되돌아가는 컨테이 너보다 더 많은 컨테이너를 받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 에 남게 되는 컨테이너는 사용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빈 컨테이너로 보내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대부분의 중고 컨테이너는 벽돌과 모르타르 같은 노동집약적인 재료로 지어진 구조물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다. 컨테이너 구조물은 매우 적은 노동력이 요구되며, 10년 된 중고

컨테이너는 개당 약 1,500달러 이하로 거래되며, 주요 해운회사로 부터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신품 컨테이너도 6,000달러 내외로 구매가 가능하다

(2) 단점

① 열전도율

철재는 열을 매우 잘 전달한다. 따라서 극심한 기온변화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된 컨테이너는 대부분의 벽돌, 블록 혹은 목재 구조 보다 더 단열을 강화해야 한다. R-28의 단열효율은 페인트 첨가 물에 세라믹분말을 섞어 2회 도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실무적으 로는 친환경 우레탄폼으로 소요 두께만큼 도포하여 시공하고 있으 며, 국제컨테이너건축협회(ISBA)에서도 단열시방서에 우레탄폼을 도포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② 기술력

철재의 재단이나 용접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공사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건설방법 보다는 여전히 공사비가 저렴하다.

③ 운반 및 설치

대부분의 경우에 컨테이너는 트럭에 의해 운반되고 크레인에 의 해 결속된다. 전통적인 벽돌, 블록 그리고 목조 건축도 트럭에 의 해 운반되지만 크레인은 필요치 않다. 컨테이너의 경우 상황에 따 라 트럭에서 하차할 경우 지게차가 필요하고, 다층구조일 경우에 는 그들을 들어 올릴 크레인이 요구된다.

④ 법적 허용여부

건축에서 철재는 산업용 건축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 주 거용 구조로는 익숙하지 않다. 현재는 건축법상의 경량철골조로 허가를 받아 통과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 던 구조형식이므로 법적인 허용을 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에 설득 작업이 추가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법적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컨테이너 건축을 시 공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국내법상으로 직접 규정한 법은 없으나, 건 축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38조(내진설계), 건축 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등이 컨테이너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법규 조항이다.

건축법 제56조는 컨테이너 건축의 규모를 결정짓는 법규 조항으 로. 컨테이너의 철재구조는 특별한 보완 조치가 없으면 내화구조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컨테이너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내화 구조를 보완하지 않는 한 3층까지만 가능하며, 일반용도시설은 2 층까지만 가능하다.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내용은 특별하게 각 조항에 언급된 용도가 아니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철근 콘크리트(RC) 공사의 경우, 해체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할 때 공기 가 더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습식공법을 시 행함으로써 구조물 전체의 균일한 시공이 어렵고, 공기가 지연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컨테이너하우스는 공장 생산 및 재활용으로 규격화된 경제적인 유닛을 이용하여 현장작업을 단 순화하고 균일한 시공이 가능하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또 한, 현장의 작업량이 많고 인력의 숙련도에 품질 의존도가 높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에 비하여 현장작업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막고,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심화되어 가는 기능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공 법을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자재의 공 장생산, 재활용, 성능 복합화, 부품화, 경량화 및 시공의 기계화, 조립화 공법으로 진전되며, 이 공법들은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기단축, 인력절감, 부족자원 절약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총 공사비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흔한 조립식 건물(컨테이 너하우스)은 ㎡당 377.839원이 소요되는 반면 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는 539.068원으로 m²당 161.299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근거 자료가 다소 오래되었지만 비율적으로 계산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RC조 건물의 공종별 공사비용

(단위 : 윈/바닥면적 m²)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u></u> 가설공사	2,894	24,000		26,864	
기초공사	1,021	645	1,140	2,860	
철근 콘크리트 공사	77,118	77,468	2,121	15,6707	
조적 및 미장공사	20,484	50,583		71,067	
방수 및 타일공사	17,741	49,450		67,191	
목공 및 수장공사	20,616	19,910		40,526	
금속공사	11,890	33,984	3	45,877	
미장공사	5,079	43,107		48,186	
창호 및 유리공사	14,527	11,843		26,370	
도장공사	3,641	13,744		17,385	
골 재 비	3,089			3,089	
합 계	17,8070	32,4734	3,264	50,6068	
운 반 비	7,739			7,739	
단가계약	25,760			25,760	

조립식 건물의 공종별 공사비용

가능하다.

(단위 : 윈/바닥면적 m²)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가설 및 기초공사	4,649	10,882	2,553	18,084	
철근 콘크리트 공사	31,331	22,945	1,174	55,450	
철골공사	19,488	37,869		57,357	
조적 및 미장공사	1,960	12,317		14,277	
방수 및 타일공사	13,398	42,097		55,495	
목공 및 수장공사	16,122	20,421		36,541	
금속공사	8,584	25,032		33,620	
창호 및 유리공사	10,333	3,659		13,992	
도장공사	1,192	4,645		5,837	
패널공사	68,494	16,363		84,857	
골 재 비	2,327			2,327	
합 계	177,878	196,230	3,731	377,839	
운 반 비	2,995			2,995	
단가계약	25,885			25,885	

※ 건교부, 조립공법의 개선 및 조립자재의 개발에 관한 연구(2005년도 기준)

이상을 정리해보면 경제적 측면을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 공기단축 : 기존의 전통적인 습식 건설방식에 비해 평균 50~80%로 공기가 단축된다. 현장에서의 기존건물 철거 및 기초공사 기간 중에도 공장에서는 컨테이너 생산 및 재활용이

- 경제성: 규격의 표준화, 공기단축에 따른 현장관리비 감소, 자재가공비 절감, 자재 대량 확보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우수 하다. 기숙사 혹은 군 숙소와 같이 표준화된 모듈을 대량 공급 하는 경우 공사비의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 현장 기능인력의 감소 : 전통적인 현장 공법에 비해 현장에서 의 작업량 및 공기가 최소화되므로 현장 기능인력에 대한 소요가 작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 건축, 조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계획과 친환경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는 재활용, 재사용, 재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 및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재료이며, 구조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컨테이너의 장점인 친환경성, 이동성, 저렴한 가격, 모듈화, 신속성, 내구성으로 인해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다.

무엇보다 컨테이너 건축이 건축사 혹은 디자이너와 만났을 때 그가치가 가장 빛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도시적 맥락이나 건축적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시적 장소에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설프게 규정된 법적 규정을 과감하게 개정하여 법적 테두리 내로 불러와야 할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 건축을 디자인하는 건축사와 시공자는 국내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어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부에서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있는 국내 현실과 건축사에 의해 디자인된 컨테이너 건축물의 대비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위한 조속한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느껴보고 자 한다. 圖



VS



이사회 개최 현황

제8회 이사회

2014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협동조합 설립 추진의 건」, 부의안건으로 「표준계약서 개발연구 (2차)용역 시행의 건」, 「2014년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건축연구원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직제·사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직원 인사 조정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협동조합 설립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기존의 협동조합 중 협회의 사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조합을 선정, 업무협약 (MOU)을 체결 진행
- 조합에 대한 협회의 출자금액 및 출자시기는 총회의결을 거쳐 추후 시행

| 부의안건 |

- ●제1호: 표준계약서 개발연구 (2차)용역 시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2014년도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 2014년도 건축연구원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장장이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위촉)
- ●제5호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 : 직제 · 사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호 : 직원 인사 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5회 건축협정 TF

제5회 건축협정 TF가 지난 7월 24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협정 관련 규정 마련에 관한 건
- 건축협정기준을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및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국토교통부에 건 축협정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심의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함.
- 건축협정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제3회 법제위원회 팀장회의

제3회 법제위워원회 팀장회의가 지난 7월 23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 건축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회장단 및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함.
- 대안에 대한 방침은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되어야 함.
- ●제2호 : 건축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행정제도 개선 제안 검토의 건
-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마련 전문 TF에서 제안된 '건축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기로 함.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따른 설계도서의 구분 제출 \rightarrow 건축물의 안 전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공사실명제 도입 → 불법 부실건축물 양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사감리제도 개선 → 건축주의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전시공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자의 책임 부여 → 이견 없음.
- ▷관계기술자의 공사감리 참여 의무화 → 중복된 건축사보의 배치는 재검토 되어야할 사항이고, 상주감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고려함.
- ▷ 대형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도 개선 → 허가권자의 주관 하에 전문 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건축인허가 공무원으로 충원 \rightarrow 이견 없음.
- ●제3호 : 법제도 개선관련 연구 제안의 건
- 감독과 감리에 대한 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 구분 및 정립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특검제도)의 현실과 실효성 연구

제11회 50년사발간위원회

제11회 50년사발간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위원회 원고료 인상안(17,566,000원 요청)에 대해 회장의 제안, 15,000,000원 인 상안에 동의함.
- 원고청탁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소위원회는 제안서 평가회(8월 8일)에서 논의하여 개최하기로 함. 추후 일정은 선정된 용역사와 논의하기로 함.
- 용역사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수 위원장, 가격협상 위원은 장양순 위원을 선임함.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7월 17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2014 UIA 더반세계건축대회 참가의 건
- 공식대표 2인 : 김영수 본협회장, 국제자문위원 이근창
- UIA Heritage Forum 참가 및 강연: 조인숙 위원
- UIA 2017 서울 인수인계식 관련 준비사항 확인
- UIA 회의 기간 중 각 지역 건축단체장 회의 추진(ACE, RIBA 회장) 요청에 대한 사전 확인 회신 및 양 단체 간 교류현황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 ●제2호: 2014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의 건
- 공식대표 2인 : 김영수 본협회장, 국제위원 강호원
- 출장 위원이 이전 출장보고서(2012, 2013년도) 참조 및 사전회의를 통해 양 단체 간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가 준비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함.
- ●제3호: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 단체장 초청의 건
- 중국(ASC), 일본(JIA), 태국(ASA), 라오스(ALACE), 아시아건축사협의회(현직, 차기회장), 몽골(UMA), 베트남(VAA)을 초청하기로함.
- 프로그램 일정 및 예산확보에 관해 논의 후 조속히 승인 및 초청 서신을 발송하기로 함.
- ●제4호: 2014년도 ARCASIA Zone C 회의의 건
- Zone-C회의는 개최 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초청국가에 홍콩(HKIA), 마카오(AAM)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속하게 확인 후 초청 서신을 발송하기로 함.
- 회의 개최의 중요성을 감안해 준비위원을 TF로 구성하기로 하고, 오동희 국제위원 장과 강승우 위원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 및 추진하기로 함.
- ●제5호: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준비의 건
-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일자 및 주제에 대한 초청 서신은 사무국에서 즉 시 발송하기로 함.
- 관련 행사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는 심형섭 위원 외 담당위원, 인천건축사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함.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

제3회 주거복지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세미나 구성 내용에 관한 건
- '집 속의 집'이라는 주제에 대한 세미나 세부 제목을 '집 · 인 · 가(집in家)'로 결정함.
- 세미나는 신생, 재생, 대응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정리하기로 함.
- 발제는 AURI 및 본 위원회에서, 토론은 국토교통부와 AURI 등 협력기관의 실무자
 및 연구 관계자로 구성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동안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룹(2~3인)을 지어 주택에 대한 민원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

제2회 회관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정부위탁업무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의 건
- 정부위탁업무 중 『건축사시험관리』,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교육』은 현재대로 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는 금년도까지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2015년부터는 부과하지 않도록 협의함. 『건축사등록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건축사실무교육』, 『건축자재전시사업』은 근거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 재혐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웨딩홀 요청사항 검토 건
- 건축사웨딩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예식사업자에게 예식홀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는 만큼 목적에 맞도록 적정 용량을 증설하여 주는 것(전력, 급수, 주차공간 등)이 당초 임대차계약의 취지에 타당할 것임.

제3회 인사위원회

제3회 인사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협회 임원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직원 인사 조정의 건
- 협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조정(안)에 대하여 순환보직(전보)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승진에 대하여는 승진 예정자가 직급 정원을 초과함에 따라 직급 정원표를 우선 개정할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급여체계 개선의 건
- 협회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차기회의에서 개선방 향을 검토하기로 함.

제2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제2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위원회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이 2014년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운영계 획을 수립하기로 함.
- ●제2호 : 어린이 건축교실 및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건
- 시 · 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회원 피해사례 지원방안에 관한 건
- 피해사례 조사(5월 29일 \sim 6월 30일) 결과, 발주처의 부당관행에 대한 총 2건의 사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조치 및 통보함.
- ●제2호: 지적재산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 협회 내 지적재산권심의기구는 해외사례 수집 등 준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소모임이라도 발족시켜 장래 공식적인기구 결성을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제3호 : 건축사 면허대여업체 적발을 위한 교육에 관한 건
- 교육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줄 것을 시·도회장에게 건의함.

제4차 FIKA 회장단 회의

제4차 FIKA 회장단 회의가 지난 7월 18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FIKA 한종률 대표회장 취임의 건
- 상반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FIKA 운영규정 및 협의서의 건
- FIKA 협의회 회의를 통해 FIKA 운영규약, 단체별 행사조율, 건축의 날 관련 사항 등 장기적인 안을 마련한 후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의 2014 더반대회 지원금과 관련한 분담은 바로 시행될 것임.
- 지원금 및 분담금 관련하여 지난 5월 대한건축학회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명확치 않으므로, FIKA 대표회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여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함.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은 구체적인 안(후원 약정서)을 작성하고, 더반대회 참석 전까지 FIKA 각 단체별로 모금운동을 시작하 기로 함. 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모금운동 전반에 대 해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총괄하기로 함.
- ●제4호: '2014 건축의 날' 정부포상 관련의 건
- 현재 제안된 안(훈장-주관단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대한건축사협회)을 토대로 상훈위원회 회의 전에 FIKA 상훈위원회 위원들과 재논의한 후 진행하기로 함.
-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 아래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에 FIKA 대표회장 명의로 건축의 날 정부포상에 대한 부당함과 훈장의 개수 추가에 대해 공문으로 조속히 요청하기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UIA 2014 Durban 대회' 참가



에사 모하메드 신임회장(좌)과 김영수 회장(우)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건축사연맹 주관 'UIA 2014 세계건축사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2017년에 개최될 서울 세계건축사대회(UIA의 World Architect Congress)의 인수를 위하여 대회 변용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위원, 국토교통부(김용수 사무관, 권희만 주무관), 서울시관계자(진희선주택정책실장, 박순규 건축계획팀장), 건축계인사 약 35명이 참석했다. 협

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함께 UIA 이사가 된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체 학생을 포함하여 4,200여명의 건축전문인들이 등록을 했으며, 북한에서도 3명(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심영학부위원장 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UIA 메달 수여식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아이엠페이(I.M.Pei)가 올해의 UIA 골드메달을 수여받았고, 탁월한 도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주는 특별상인 로버트 매튜 경(Sir Robert Mattew) 상은 서울시가 수상했다.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인 말레이시아의 에사 모하메드가 회장으로 당선됐고, 2020년 세계건축사대회의 개최지를 리오(브라질)로 선정했다. 협회 김영수 회장은 방문 중 유럽건축연합회(ACE, Architect Council of Europe, 회장 Luciano Lazzari)와 영국왕립건축사회(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회장 Stephen Hodder)의 요청으로 계속교육 등을 상호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 관련 각종정보 등을 교환하는 조건을 담는 합의 내용에 대해 추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영수 회장,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방문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13일 대전광역시건축사회를 방문해 대전지역 건축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건축사회 송영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협회의 주요 현안사항인 감리자지정권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업무, 5가지 안전 분야의 제도개선, 민간발주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제도, 지자체의 임의규제 폐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영수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방문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18일과 21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전라남도건축사회를 각각 방문해 지역건축사들과 건축계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금수장에서 열린 광주건축사회 간담회에는 안길전 회장 및 이사, 자문위원 등 광주지역 건축사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남건축사회 간담회에는 국원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건축사들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두 곳의 간담회에서 지역건축사들에게 ▲감리제도 개선 추진 현황 ▲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3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회원 피해사례 지원방안에 관한 건
- 피해사례 조사(5월 29일 \sim 6월 30일) 결과, 발주처의 부당관행에 대한 총 2건의 사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조치 및 통보함.
- ●제2호: 지적재산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 협회 내 지적재산권심의기구는 해외사례 수집 등 준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소모임이라도 발족시켜 장래 공식적인기구 결성을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제3호 : 건축사 면허대여업체 적발을 위한 교육에 관한 건
- 교육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줄 것을 시·도회장에게 건의함.

제4차 FIKA 회장단 회의

제4차 FIKA 회장단 회의가 지난 7월 18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FIKA 한종률 대표회장 취임의 건
- 상반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FIKA 운영규정 및 협의서의 건
- FIKA 협의회 회의를 통해 FIKA 운영규약, 단체별 행사조율, 건축의 날 관련 사항 등 장기적인 안을 마련한 후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의 2014 더반대회 지원금과 관련한 분담은 바로 시행될 것임.
- 지원금 및 분담금 관련하여 지난 5월 대한건축학회의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명확치 않으므로, FIKA 대표회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여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함.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은 구체적인 안(후원 약정서)을 작성하고, 더반대회 참석 전까지 FIKA 각 단체별로 모금운동을 시작하 기로 함. 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모금운동 전반에 대 해서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총괄하기로 함.
- ●제4호: '2014 건축의 날' 정부포상 관련의 건
- 현재 제안된 안(훈장-주관단체,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대한건축사협회)을 토대로 상훈위원회 회의 전에 FIKA 상훈위원회 위원들과 재논의한 후 진행하기로 함.
-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 아래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에 FIKA 대표회장 명의로 건축의 날 정부포상에 대한 부당함과 훈장의 개수 추가에 대해 공문으로 조속히 요청하기로 함.

건축계 소식

김영수 회장, 'UIA 2014 Durban 대회' 참가



에사 모하메드 신임회장(좌)과 김영수 회장(우)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건축사연맹 주관 'UIA 2014 세계건축사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2017년에 개최될 서울 세계건축사대회(UIA의 World Architect Congress)의 인수를 위하여 대회 변용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위원, 국토교통부(김용수 사무관, 권희만 주무관), 서울시관계자(진희선주택정책실장, 박순규 건축계획팀장), 건축계인사 약 35명이 참석했다. 협

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함께 UIA 이사가 된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체 학생을 포함하여 4,200여명의 건축전문인들이 등록을 했으며, 북한에서도 3명(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심영학부위원장 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UIA 메달 수여식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아이엠페이(I.M.Pei)가 올해의 UIA 골드메달을 수여받았고, 탁월한 도시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주는 특별상인 로버트 매튜 경(Sir Robert Mattew) 상은 서울시가 수상했다.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인 말레이시아의 에사 모하메드가 회장으로 당선됐고, 2020년 세계건축사대회의 개최지를 리오(브라질)로 선정했다. 협회 김영수 회장은 방문 중 유럽건축연합회(ACE, Architect Council of Europe, 회장 Luciano Lazzari)와 영국왕립건축사회(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회장 Stephen Hodder)의 요청으로 계속교육 등을 상호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축 관련 각종정보 등을 교환하는 조건을 담는 합의 내용에 대해 추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영수 회장,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방문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13일 대전광역시건축사회를 방문해 대전지역 건축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건축사회 송영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협회의 주요 현안사항인 감리자지정권 변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업무, 5가지 안전 분야의 제도개선, 민간발주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건축물 유지ㆍ관리점검제도, 지자체의 임의규제 폐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영수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방문

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8월 18일과 21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전라남도건축사회를 각각 방문해 지역건축사들과 건축계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 금수장에서 열린 광주건축사회 간담회에는 안길전 회장 및 이사, 자문위원 등 광주지역 건축사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남건축사회 간담회에는 국원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건축사들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번 두 곳의 간담회에서 지역건축사들에게 ▲감리제도 개선 추진 현황 ▲

유지관리 점검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협회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역건축사들의 협조도 부탁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사 직무연수 실시



대한건축사협회는 '자유학기제'의 중학교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7월 28일 부터 8월3일까지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번 중학교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총 30시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직무연수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해당 선택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학생들의흥미를 유발시키고 건축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킬 수 있는 모형 만들기, 내 집 꾸미기, 벽돌쌓기, 투시도 그리기 등 다양한 실습 위주로 구성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 인천건축행정합동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이하 인천건축사회)는 지난 8월 14일 인천시내한 식당에서 '2014 인천건축행정합동간담회'를 갖고 건축행정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일선 구·군청 건축과 간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은 "지역건축행정 현안에 대해 인천시와 각 행정청에 건의하고 개선할 부분은 고쳐나가자"며, "인천시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천건축사회는 인천시에 '기계식 주차 제한문제' 등 7건의 불합리한 법적 · 행정적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시는 건의사항을 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김현진 건축사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올해 대상에는 '혼신지 집'을 설계한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5명 등 총 8명의 신진건축사가 선정됐다. 인의식 심사위원장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작품의 완성도,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ㆍ시공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했다"고 전했다.

대상작인 '혼신지 집'은 연꽃으로 가득 찬 저수지(혼신지)와 마주하고 있는 대지에 인근

에서 생산되는 청석으로 담을 쌓아 건축물과 대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자연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며, 세부디자인에도 건축사의 진지한 노력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및 최우수상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우수상에게는 대 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 작들은 작품집으로 제작되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아이디 어 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내역〉

구 .	분	수상자	건축사사무소	작품명			
국토교통부	대상	김현진	에스피엘케이	혼신지 집			
	710 4 4	윤태권	엔진포스	양평패시브하우스			
장관상	최우수상	노영자	LIM	케이 팩토리			
		김승욱	피에이치에이	제주풀빌라루온토			
	우수상	박세희	(주)지(안	문화공장 오산			
협회장상		박성현	㈜씨드아키텍	엔젤어린이집			
		박현모	아뜰리에11	김녕리5993			
		현상훈	201	은재네 돌담집			

신간안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김도환 저 / 572쪽 / 대건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다룬 이론서로, 해당 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에는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재활용 건축자제의 활용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람의 가치 건축저널리스트 최연숙의 글모음

최연숙 저 / 475쪽 / 정예씨



'사람의 가치'는 저자 최연숙이 건축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시절의 다양한 텍스트와, 그녀와 함께하며 교감을 주고받았던 건축·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전문지 〈공간〉를 통해 기자생활 시작을 한 저자는 이후 〈플러스〉와 〈건축문화〉에서 근무하며 다각도에서 건축비평을 하고, 건축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3곳의 건축전문지에 게재된원고들을 모은 것으로, 글을 통해 당시 건축계의 시대상과

건축사들의 생각 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평소 저자와 친분이 깊었던 국민대 장윤규교수, 김재경 사진작가, 한양대 서현 교수 등이 최연숙을 회상한 원고도 함께 수록했다.

통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9월초순

구분				개 인 /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건축	1	인	2	인	3인	이상	소	. 계	1	인	2	인	3	3인		인	5인	[이상	소	. 계	<u> </u>	71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417	6,417	73	146	8	24	6,498	6,587	1,873	1,873	233	466	56	168	25	100	16	107	2,203	2,714	8,701	9,301
서울	971	971	22	44	0	0	993	1,015	921	921	125	250	37	111	12	48	11	66	1,106	1,396	2,099	2,411
부산	559	559	8	16	2	6	569	581	123	123	28	56	3	9	2	8	1	7	157	203	726	784
대구	557	557	11	22	5	15	573	594	73	73	13	26	3	9	3	12	0	0	92	120	665	714
인천	304	304	3	6	0	0	307	310	64	64	7	14	1	3	0	0	0	0	72	81	379	391
광주	234	234	1	2	0	0	235	236	52	52	6	12	1	3	2	8	1	5	62	80	297	316
대전	269	269	5	10	0	0	274	279	36	36	9	18	3	9	1	4	1	14	50	81	324	360
울산	206	206	4	8	0	0	210	214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4	241
경기	921	921	2	4	0	0	923	925	279	279	13	26	6	18	1	4	0	0	299	327	1,222	1,252
강원	207	207	2	4	0	0	209	211	29	29	2	4	0	0	1	4	0	0	32	37	241	248
충북	238	238	2	4	0	0	240	242	44	44	4	8	2	6	2	8	1	9	53	75	293	317
충남	317	317	1	2	0	0	318	319	67	67	8	16	0	0	1	4	0	0	76	87	394	406
전북	284	284	4	8	0	0	288	292	30	30	4	8	0	0	0	0	0	0	34	38	322	330
전남	221	221	0	0	0	0	221	221	24	24	1	2	0	0	0	0	1	6	26	32	247	253
경북	454	454	4	8	1	3	459	465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508	519
경남	524	524	4	8	0	0	528	532	43	43	4	8	0	0	0	0	0	0	47	51	575	583
제주	151	151	0	0	0	0	151	151	23	23	1	2	0	0	0	0	0	0	24	25	175	17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건축사회	건축사	비 율
합 계	9,301	100%
서 울	2,411	25,92%
부 산	784	8.43%
대 구	714	7.68%
인 천	391	4.20%
광 주	316	3.40%
대 전	360	3.87%
울 산	241	2.59%
경 기	1,252	13.46%
강 원	248	2.67%
충 북	317	3.41%
충 남	406	4.37%
전 북	330	3.55%
전 남	253	2.72%
경 북	519	5.58%
경 남	583	6.27%
제 주	176	1.89%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8월말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7	1	12,517	3,350
서	울	3,944	2,190
부	산	777	137
대	구	685	91
인	천	387	10
광	주	308	72
대	전	364	60
울	산	237	48
경	기	1,457	160
강	원	262	26
충	북	328	83
충	남	385	80
전	북	338	37
전	남	275	75
경	북	493	37
경	남	609	75
제	주	178	55
7	타	1,490	114
Ы	고	회원 : 9,136 / 비회원 : 3,381	대학 : 3,077 / 대학원 : 273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고
회원수	6,587	2,714	9,301	
비율	70.82%	29.18%	100%	
사무소수	6,498	2,203	8,701	
비율	74.68%	25.32%	100%	